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위에 탄생시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껏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보다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2장 14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2월 20일 (토) 제 151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성탄 칼럼

최상의 성탄예물을 드리자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지구촌 인류의 최대의 축제일로 지역적 경계를 뛰어 넘은 우주적인 축제일로 선포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성탄의 본 의미는 퇴색되어가고 기독교와 상관없이 상업적 분위기에 휩쓸려 세상의 축제일로 휘황찬란하게 변색되고 있다.

서로 주고받는 선물의 의미도 인간적인 풍습으로 변질됐다. 크리스천들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의 생활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하면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는 얼마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가 문제이다.

동방박사들의 선물

예수님 탄생 당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모범적인 성탄축하자로 최상의 성탄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황금은 왕에게 적합하고 유황은 하나님께 적합하고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했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 그들은 합당한 좋은 선물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다.

헌신의 예물(몰약)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몰약)을 기뻐하실 것이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엡2:1, 4, 5, 8)! 이 구속의 선물, 영생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생명을 바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토마스 아킴피스(Thomas Akempis)는 “그리스도를 분받아”라는 책에서 “오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바치리이까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 자신을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셨다”고 썼다.

전도의 예물(유황)

또한 주님께서는 형제나 이웃의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전도(유황)는 성탄의 의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된다(눅15:7). 주님께서는 자기와 동역, 동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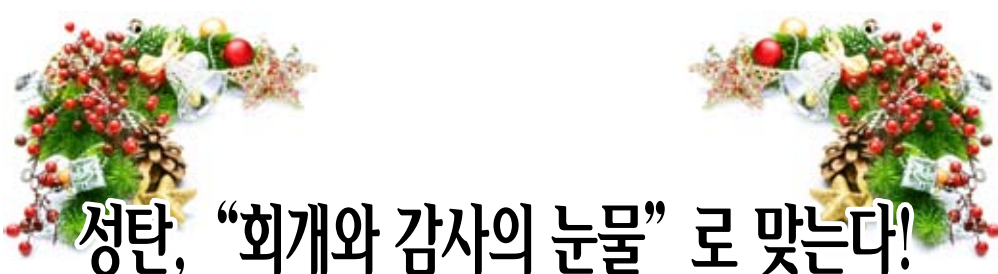
전도는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도해서 생명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기 예수께 유황을 드리는 것과 같다.

믿음의 예물(황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히11:6). 믿음은 인생에게 있어서 황금이다. 세상에서 가치의 기준을 황금에 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의 가치도 믿음에 비할 수 있다. 믿음 없는 인생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최고의 경배를 드리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허시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의 방은 있으면서 나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모실 방은 마련하지 않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는 2014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란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헌신과 전도,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2014년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성탄, “회개와 감사의 눈물” 로 맞는다!

2015년 성탄절 맞아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와 실천 상고

성탄절은 사랑과 나눔의 절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허락되는 소중한 시간이다. 평소 나와 내 가족의 바쁜 생활 속에 미처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주변을 돌아보며 작은 정성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다. 어린 이들에게 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사랑받는 베타 감동을 품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주변에 병들어 마음이 외로운 지인이 있다면,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홀로 외롭게 지내는 아는 이가 있다면, 그리고 이런저런 오해로 묶여있는 관계가 있다면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서 돌아보아 진정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돼야 한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성탄절은 인류 구원의 구세주 탄생이라는 영적 참 의미를 상실한 채 선물교환과 향락을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중반까지도 성탄절은 이웃사랑과 자신을 중요시하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으로 보내는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상업주의 발달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 선보이는 업체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성탄절은 그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고 소량의 계절로 변질되는 양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배경으로 한 이민자들의 분포도가 각국마다 높아지면서 성탄절의 절기를 성탄절이 아닌 연말연시 홀리데이 시즌으로 축하하는 성향이 강해져 결국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더욱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아닌 홀리데이(holiday)로 부르도록 강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립학교에서 예수의 탄생을 관한 캐롤이 금지되는 일, 예수 탄생 조형물들이

무신론자들에 의해 밀려나는 일, 예수 대신 산타를 칭송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도 크리스마스를 적극 홍보하는 친 크리스마스 기업과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크리스마스를 홍보하지 않는 반 크리스마스 기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기독교 단체들이 반 크리스마스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결의하는 등 성탄절을 둘러싼 ‘크리스마스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지구촌의 화약고인 중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크리스천이 없는 성탄절이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IS)’의 가혹한 박해와 린치로, 초대교회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대거 타향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실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했기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대리속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일까?

(4면으로 계속)



2면

“퍼거슨 사태”, 미 외교정책과 위상에 마이너스 영향



3면

성탄 설교 김성국 목사 (킨즈장로교회)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초대시 김문희(권사, 시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5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5년 5월 11(월)~13(수) 뉴욕장소, 5월 15(금)~18(월) 브라질장소
- 2) 고시 장소: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Brazil Iguazu (고시부서기에게 문의바람)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 주해 - 창세기 6:1-4
 - (2) 신약 주해 - 사도행전 9:10-19
 -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입장에서교단외교성예대하여논하시오
 - (4) 설교 본문 - 이사야 40:26-31
 - ①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② 필기고사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논문을 중심으로 설교원고사를 지름
-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 3) 면접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5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이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명함판 사진 2장
- 7) 고시료: \$150.0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제출소과목은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5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인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9회 총회기간(5월 19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서기(김영기목사)에게시험기간(11월-13일 2015년뉴욕장소, 15-18일 2015년브라질장소) 중사용할속속예약할것.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Rev. Young Kee Kim) / Email: youngkey48@gmail.com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443)520-5242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718)309-3376, kilhee2003@yahoo.com
- 2)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3) 고시부 회계: 허은준목사(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시론

사슴나무골에서(12): 목회자의 상처치유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감정의 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고 영원히 머물지 않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순간보다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더 많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에 종으로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만으로도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문제는 목회자들도 이러한 감정의 기복을 겪으며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른 채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그 병폐가 특히 오래갑니다. 사랑을 쏟고 그 영혼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던 교인이 가슴아픈 말을 하며 떠날 때 자신의 존재감과 사역자체에 회의가 들면서 깊은 절망과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성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교인에게 엄청난 분노감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성향의 경우는 자신의 자질과 능력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자책하면서 슬픔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목회에서 어려운 일을 부딪칠 때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근심하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조금씩은 이러한 성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상기한 세 가지 성향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경향이 너무 뚜렷하다면 그에 따른 바른 대처 방법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상담심리학에서는 첫 번째 성향의 사람을 보통 'Wanter'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특성은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의 책임을 전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요인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노라는 감정에 쉽게 빠져 듭니다. 두 번째 성향의 사람은 'Giver'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 그대로 남에게 늘 배풀면서 만족감을 누리며 삽니다. 사랑을 쏟았고 섬겨주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나 가정이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이 부족하고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쉽게 자책하며 슬퍼합니다. 세 번째 성향의 사람은 'Seeker'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든 그 뒤에는 특별한 섭리나 목적이 있다고 믿으며, 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감당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우려와 공포 속에서 갇혀서 고통을 받습니다.

Wanter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주위에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과 영적 지원군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주위의 지원그룹들은 당사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억누르지 말고 잘 다스려야 하는 감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Giver인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의 감정이나 태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만 그 민감한 성품 때문에 더 상처를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쉽게 노출하지 않아서 그 감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그 슬픈 마음을 말하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해온 섬김과 베품의 삶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것인지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Seeker그룹의 사람은 그 사람이 믿고 살아온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그 여정을 확신 속에 다시 떠나갈 수 있도록, 두려움과 불안의 늪에서 자신이 흠뻑 젖을 통틀고 일어나 빠져 나오도록 그 옆에 앉아서 마치 그 여행을 함께 떠날 친구와 같은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피하지 않고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향에 대한 이해는 비단 목회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학교, 직장, 병원과 같은 사역환경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열두 제자들과 삶을 공유하시면서 그들의 장단점, 연약함과 같은 성품을 아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위대한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신을 먼저 알고 가족들과 교우들을 잘 목양하는 지혜로운 목회자로 살아왔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봅니다.

“퍼거슨 사태”, 미 외교정책과 위상에 마이너스 영향

뉴스위크, 과거 동일사태 경험 ‘케네디대통령’ 사례 통해 적극적 대처 요구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퍼거슨사태의 여파가 미국 외교정책에도 조심스럽게 영향을 드리우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주요 외교목표로 삼아온 미국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해 적극적으로 '인권외교'를 전개하는데 혹여라도 지장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표정이 읽힌다. 특히 미국의 인권개선 압박에 반발해온 중국과 북한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본격적인 역공을 취하고 나서자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뉴스위크에서는 외교정책과 정보 관련 주제로 오랜 기간 기사를 써오고 있는 제프 스테인(Jeff Stein)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는 한마디로 국내 인권도 보호 못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외에 설파하는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보도했다(Ferguson and Garner Cases Hurt U.S. Foreign Policy).

존 F. 케네디는 수그러들 줄 모르는 민권운동 시위에 물러버렸다. 냉전이 한창인 시기에 케네디의 주된 관심사와 열정은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것이었다. 1963년 여름 앨라배마 주 버밍햄에서 '프리덤 라이더스(버스를 타고 흑인 차별이 극심했던 남부를 돌며 차별철폐 외친 시위대)'가 경찰의 난폭한 진압에도 물러서지 않자, 젊은 대통령 케네디는 짜증

스탠퍼드대 연구원으로 '냉전시대의 민권운동'의 저자인 메리 더지액은 "인종문제가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제3세계에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변화를 추진하려고 분투했지만 잘 먹히지 않았다. 특히 그 나라의 독재자가 미국의 친구인 경우가 그랬다. 더지액은 이렇게 설명했다. "버밍햄에서 경찰전이 시위대를



국외 "위선"을 부르짖는다. 더지액에 따르면 만약 오바마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다면 케네디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 "버밍햄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칸대의 연설에서 케네디는 민권을 "성경만큼 오래됐고...미국 헌법만큼 명확한...도덕상의 문제"라고 선언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우리 동료

미국 인권외교 전개에 걸림돌...중국, 북한 역공에 곤혹 오바마의 담대함/수사적 기술로 인종갈등위기 타개기대

이났다. 미국 내부의 폭력적 분열은 자동적으로 소련의 체제 선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세계적인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게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케네디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기 작가 리처드 리브스는 적었다. 프리덤 라이더스 시위는 케네디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소련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와 담판을 짓기로 한 바로 전날 최고조에 달하면서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상황도 통제할 수 없는 인물로 비치기 때문이었다. 케네디는 민권 담당 보좌관 해리스 워퍼드를 불러 프리덤 라이더스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았다. "그들의 시위를 중단시키시오! 당신 친구들이 그 버스에서 내리도록 하란 말이요."

그뿐이 아니었다. 아프리카 외교관들은 차를 타고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면서 메릴랜드 주의 집크로브(흑인차별법) 때문에 백인전용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케네디는 "그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하시오"라고 냉소했다.

공격하는 사진이 세계에 전송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신생 독립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우방국 정권을 미국이 비판해도 미국 내부의 인종갈등 때문에 그런 비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바라 오바마 대통령도 현재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더지액은 지적했다.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경관 대런 윌슨과 뉴욕 주 스테튼아일랜드에서 흑인 에릭 가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경관 데니얼 팰라레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 좋지 않은 소식과 사진, 동영상도 쇄도하면서 버밍햄 시위 후 50년도 더 지난 지금 런던에서 바그다드, 베이징에서 테헤란까지 세계 전역의 매체로부터 미국의 인종갈등이 다시 초대형 뉴스로 취급받고 있다. 심지어 아랍어 라디오와 TV 방송국을 통해 오지의 산악지대까지 그런 소식이 속속들이 알려졌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모두 소셜미디어에서 의기양양하게 미

은 사람은 케네디가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고 더지액은 지난 8월 국제관계 평론잡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 썼다.

"민권당당 보좌관 버크 마셜이 나중에 말했듯이 미국인들은 "왜 대통령이 나서지 않나"라고 의아해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섰다. 그는 마셜을 버밍햄에 보냈다. 마셜은 민권운동 지도자, 지방 정부와 업계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타협안을 마련했다. 버밍햄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체포된 시위자들을 석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때쯤 버밍햄 사태는 지방 현지의 위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미국 전체의 위기, 또 국제적인 사태로 발전했다. 그 때문에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조지 월리스 앨라배마 주지사가 주립대의 정문에 서서 흑인 학생의 수감등록을 막자 케네디는 더 강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 남부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만했다. 케네디는 흑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연방 정부 소속으로 편입시키고, 혁신적인 민권법을 제정했다. 아메리

미국인을 대우해주느냐 여부입니다."

특히 케네디는 인종차별 철폐가 도덕적인 의무만큼이나 외교정책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세계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미국 안에서도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계에, 더 중요하게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고, 이유 시민이 없는 나라이며, 빈민가도 지배민족도 없는 나라지만 다만 흑인은 거기서 예외라고 말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굶주림과 질병, 절망의 수렁에 빠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각축전을 벌이던 세계 구석구석에서 케네디 연설에 대한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더지액의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 주재하던 미국대사는 본국에 이런 전문을 보냈다. "언론의 논조가 즉시 달라졌다. 하일레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황제는 그 연설을 '결작'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곳에서도 반응은 비슷했다.

(4면으로 계속)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사람은 찾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찾고 무언가를 찾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자들의 애절한 눈물을 보았고, 사라진 정의와 공평을 찾는 자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 일 년은 그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온 나날이었습니다. 무엇을 찾으며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찾는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정작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였는데 저 멀리 있던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멀리서부터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의아함을 마음에 품고 먼저 동방박사들이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고 왜 예수님을 찾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았다

동방박사들이 찾아 나선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나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박사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어느 신(神)도 이 땅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더욱 나약한 아기의 모습은 이 세상 신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을 찾아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사람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았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때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먼 길 자체가 어려움이었고 무엇보다도 별을 잃어버린 것이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찬 거짓말쟁이 헤롯왕이 그들의 어려움이었고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실지 지식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냉랭하기 짝이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존재가 그들 앞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상황과 사람들이 어려움이 주어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 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

았다

동방박사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2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머물러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10절).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목적대로 예수님께 옆드리어 경

배, 이방인, 기쁨에 대한 예언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

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요(6절)...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11절)” 이 예언은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굽혀 경배드림에 대한 예언

이사야 60장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 몸을 굽히고 옆드린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를 괴

(21:3,8-9). 오늘 본문의 빛, 이방인, 기쁨, 예물, 경배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순(矛盾)의 조화(調和)

사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왕에게 멀리서 찾아온 이방인의 경배함이라는 모순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모순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 종말의 시각으로

역사의 종말에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는 자들과 헤롯왕처럼 예수님을 거짓으로 찾거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방담한 자들이 영원히 나뉘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인든 여자이든, 부자인든 가난한자인든 상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기준은 예수님을 찾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특징은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듯이 어둠이 아니라 빛을 따르는 것이요,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요, 상황에 애용해하거나 사람에게 분노함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고, 정성으로 준비된 극상품 예물드림이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경배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잠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빛을 그리워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하여도 예수님을 찾고 삶을 멈추지 않을 각오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아내 소중한 것을 쏟아 경배하는 것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동방박사이야기를 성탄절에 의례히 듣고 지나가는 2000년 전 이야기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동방박사 이야기는 이사야 60장 예언 성취의 출발이요 계속 진행될 이야기입니다. 곧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종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오늘의 동방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행될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나도 반드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임동한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탄설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마태복음 2:1-12)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가져온 보배로운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11절). 동방박사들은 이렇듯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았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았으며, 그에게 옆드려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언되어 있었다

이제 앞서 품었던 질문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의아함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전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것이요 그의 구원이 온 만민에게 이를 것이라는 이사야 60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구절은 메시아 위에 빛이 비추일 것이며 진정한 빛이신 메시야가 어둠의 땅 만민에게 비출 것이며 사방의 무리가 그 빛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기쁜 빛”이라고 5절은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빛난 별을 따라 먼 이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마침내 예수님 위에 머물러 비추었고, 그 빛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예물드림에 대한 예언

또 이사야 60장은 이방으로부터 온 재물이 메시아에게 드려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움이러(5절)...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

뒹미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떨치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와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14절).

과연 이 말씀대로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옆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빛, 이방인, 기쁨, 예물, 경배 등이 이사야 60장의 예언이었고, 오늘 본문의 별, 동방박사, 기쁨, 예물, 경배 등이 그 성취인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언 성취의 시작일 뿐

그러나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성취된 것은 그 서론에 불과합니다. 성취의 웅장한 완성은 요한계시록 19장으로부터 22장이 펼쳐 보여줍니다. 그곳에도 빛이 있고(21:23-24), 큰 기쁨이 있으며(19:7), 만국인(21:24), 그들이 가져온 온갖 귀한 것(21:26), 그리고 예수님께 옆드린 경배가 드러납니다

보니 너무나 어울리고 너무나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이 모순의 조화로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되어 멋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동방박사 이야기는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5 불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당신 인생의 품질을 생각하라!

머리 요스트라는 분이 “경영자들 위한 명상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경영자들은 사업경영에 온정신이 빠져서 사는데 사업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도 잘 경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경영할 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쉬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품질이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니 언제나 품질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최대한 높여야 한다면서 품질

이 생명이라 강조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품질은 생각하지 않고, 온갖 짝퉁을 만들어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지만 결국 품질에 초점을 맞추어 일등급의 품질, 명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성공한다. 회사가 만들어낸 상품에 품질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품질이 있다.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다 각각 품질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

지 특징이 있다. 일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품질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눈앞의 많은 이익, 많은 재물과 인기, 당장 높은 명예만 추구하다 보면 그만 짝퉁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의 품질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인생의 품질도 끊임없이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만들어 내놓는 상품은 품질이 떨어지면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죽음의 문턱에서는 ‘아하! 그동안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깨닫고 후회해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오직 한번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 히브리서 9:27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했다. 그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인생 품질을 평가받을 것이다. 인생의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학벌을 쫓

으면 인생의 품질이 높아지는가? 생활수준을 높이면 품질이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이 명품 인생, 자기 인생의 품질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까지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옛날 고대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명하복이다.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라 하면 해야 하고 쉬운 방법이 있어도, 하지 말라 하면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보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하고 말씀하는데 여기 섬긴다는 것은 종의 자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하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종과 주인의 관

계로 설명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곧장 이어지는 단어가 따르라는 말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다. 사람들은 ‘섬긴다’하면 나와서 일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또 선교회 회장이니 교회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만을 섬기는 것으로 안다. 맞다. 그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기 ‘따르다’는 말은 ‘그 삶의 길 위에 나도 있는 것’ 그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란다. 직장에서도 예수 잘 따라가면 그 직장은 좋은데 대해 느끼는 죄책감도 없다. 가정에서도 주님만 잘 따라가면 당연히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다.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 가셔도 어떤 상

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따라 살리라!’하는 것이 생활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따라 가는 것이다. 예수 믿는 인생의 품질은 바로 그런 것이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시는 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에 올라선 분들이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주님을 따라 사는 일등급, 명품인생이 되어야 한다. 마5:16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다.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서도 비칠 때, 세상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는 명품성도가 되기 바란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통로!

WSJ, 자기 죄악에 대한 죄책감의 유익 연구 결과 보도

죄책감은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다. 죄책감은 수치심, 두려움, 슬픔, 분노, 고뇌, 심지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정들을 이용해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용서를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죄책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간혹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에도 죄책감을 느낀다. 사과의 생존자라든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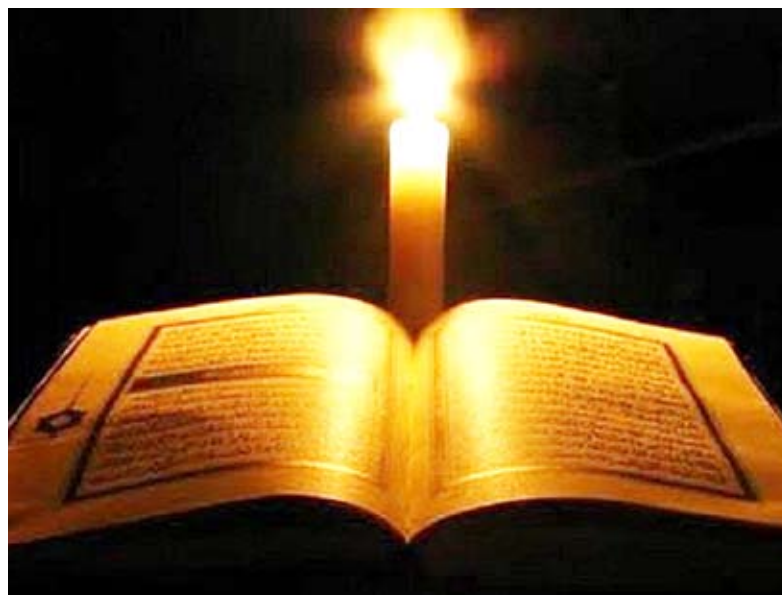
한편 바람직한 죄책감은 선량한 양심으로 작용한다. 죄책감은 불편한 마음을 일으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하도록 만든다. 죄책감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유다의 경우처럼 매우 파괴적일 수도 있고, 베드로의 경우처럼 매우 긍정적일 수도 있다. 윌스트리트저널은 자기의 죄악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준다(Guilt Versus Shame: One Is Productive, the Other Isn't, and How to Tell Them Apart: Both Men and Women Who Are Prone to Feeling Guilty Also Are More Empathic, Researchers Say).

죄책감은 강력한 동기 요인이다. 때로는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하게 만든다. 약간의 죄책감은 이로울 수도 있다. 나쁜 행동을 할 경우, 죄책감을 느낌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것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죄책감은 이로울 수도 있지만, 부적절한 죄책감은 해롭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수치심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3월 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범죄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죄책감을 느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워싱턴DC 소재 교도소 재소자 476명을 대상으로 죄책감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15개의 가상

상황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각 상황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재소자들이 평가하도록 했다. 이 재소자들이 석방된 지 1년 후, 연구팀은 후속 조사를 벌여 이들에

게 석방 후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물었고, 그 결과를 경찰 기록과 비교했다. 애초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밝혔던 이들은 1년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주도한 존 텡니 조지메



이슨데 심리학 교수는 “죄책감은 이로움 감정이다. 죄책감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면서, “그러나 자신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은 잘못을 은폐, 회피, 부인하거나, 많은 경우 타

사람들은 대체로 거짓말, 부정행위, 절도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또 왜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로

다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은지도 확실치 않다. 텡니 교수는 연구결과, 유전적 요소나 훈육과 죄책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텡니 박사는 부모와 자녀 간에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 모녀, 모자, 부녀 기간보다 부자기간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죄책감을 더 잘 느끼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공감 능력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텡니 박사는 부연했다. 러셀 로빈슨 교수는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 엠허스트 캠퍼스의 수잔 크라우스 윌트본 심리학 및 뇌과학 교수는 5가지 유형의 죄책감을 정의했다. 그녀에 따르면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행위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이 긍정적인 것이다. 윌트본 교수는 나머지 4가지의 죄책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

바람직한 죄책감은 선량한 양심으로 작용해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벌 받고자 나오는 것

인의 탓으로 돌리도록 만든다”고 분석했다. 텡니 교수는 30년 간 죄책감을 연구해왔다. 그녀는 공학, 대학 등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지를 물었다. 심지어 아동들도 그녀의 연구 대상이 됐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에 따르면 생후 15개월 된 유아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 살 무렵에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5학년 즈음에는 확실하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고 텡니 박사는 언급했다.

첫째는 자신이 행하지 않았지만 실행에 옮기고 싶었던 행위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이다. 친구의 배우자를 이성으로 보고 자면서 그에 대해 꿈을 꾸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해 느끼

성탄,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맞는다!

(1면에서 계속) 주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된다.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성탄절이라면 참으로 무의미한 날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눈물”이다. 마구간처럼 더러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고 마구간에 오신 주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두 가지 눈물로 마구간처럼 더러운 마음이나마 좀 씻어내 청소라도 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올바른 자세를 갖기를 기대해 본다.

결국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다. 온갖 회색을 치르고서라도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구속적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의 실천이 이뤄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 없이 이 절기를 보내는데 익숙해졌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애 기간 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노래하거나 예배하거나 행사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거리와 시장과 들과 산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대면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증거 하셨다. 사람들은 교회의 붉은 내은 십자가를 외면하며 그것을 ‘공해’라고도 말한다. 이것은 교회가 제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데 열중하고 많은 헌금을 위해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분주한 상황에서는 결코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으며, 존중받을 수 없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물론 지각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즉 피흘려 죽음을 사함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대열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퍼거슨 사태”, 미 외교정책과 위상에 마이너스 영향

(2면에서 계속) 그러나 경고도 따랐다.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쏟아지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에머리대 법·문화·사회의 전쟁·안보 프로젝트 소장이기도 한 더지액은 해외 언론의 눈조를 바꾸려면 오바마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종문제가 배경에 깔린 사건에서 현지 경찰청과 검찰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도록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오바마는 인종차별을 미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말로 그럴 게 아니라 행동도 필요하다. 현지 당국에서 질 나쁜 경찰



과 나약한 검찰을 숨이내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를 궁지로 몰아가는 매우 음침한 세력에게 전쟁터를 내주게 된다고 더지액은 말했다. “1960년대 초엔 핵전쟁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일으켜 세계를 파멸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다(실제로 1962년 쿠바사건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확실히 잡았다. 그러나 이슬람 혁명분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미국은 여전히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국내에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외에서 인권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무대에선 상황을 호전시킬 힘이 오바마에게만 있다. “때로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때로는 영감이 중요하다”고 더지액이 말했다. 인종차별에 단호하게 맞선 케네디의 굳은 의지를 떠올리게 한다. 오바마는 담대함만이 아니라 2008년 대통령 후보로서 보여준 멋진 수사적 기술을 다시 동원해 인종갈등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더지액은 말했다. “오바마는 과거 그런 재주를 보여주었다. 이번에도 오바마가 미국인에게 더 강력한 목소리를 들려주면 좋겠다.”



성탄절이 왔다.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절기이다. 하지만 성탄의 계절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성탄절의 특별 세일은 기다리면서 성탄의 주인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성탄절에 낯설지 않는 풍경이다. 어린이 동화 가운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Dr. Seuss series이다. 그 중에 성탄절과 관련한 '크리스마스를 훔친 그린치'라는 책이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흥행을 했다. 주인공인 Grinch는 Whoville 마을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의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목표를 세운다. 성탄을 훔치려는 전략이었다. 마을사람들

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아들도, 아내도, 삼촌도 살해한다.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남아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광장의 왕이 오는데 살인과 학살로 맞이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고 사단이다. 이 세상은 가짜 왕들로 가득하다. 동방박사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는가? 아니면 헤롯처럼 두려움으로 왕을 거부하려는가?

셋째, 사단은 교만한 무관심을 통해서 성탄을 훔친다. 성탄을 훔친 사람들은 종교지도자들이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것을 알았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식을 들었다. 동방의 권력자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다.

왜 크리스마스를 놓쳤을까? 무관심이다.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 그

들은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성탄을 잃었다. 다섯째, 사단은 우상숭배로 성탄을 훔친다. 로마인들도 성탄을 도난당했다. 미가의 예언을 위해서 황제 아우구도가 천하에 호적령을 내렸다. 예수님은 로마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장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로마인들에 의하여 고문을 받으시고 로마군인들이 십자형을 집행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려는 종교지도자들의 매수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했다. 로마인들이 부활을 놓친 것은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2천년전과 같은 우상들은 아니지만 아직도 우상들을 많이 섬긴다. 돈, 성적인 쾌락, 자동차, 보트, 집 등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과 사이를 막고 있다. 무엇을 경배하는가? 우상이나 세상을 경배하면 오늘의 성탄도 놓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단은 친숙함을 통해서

은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가지 않았다. 왜? 그들은 메시야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관심의 원인은 항상 교만이다. 그들의 시스템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들의 메시야는 자기들의 돈이고, 권력이고, 권세이고, 지위이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성경이 예언한 메시야를 거부한 것이다.

넷째, 사단은 종교적 의식으로 성탄을 훔친다. 성탄을 훔친 사람들은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탄생의 소식을 전했다(눅2:8-9). 목자들은 아기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다. 목자들은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그 지경과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사람들이 없었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종교적 예식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부정하고 비천한 그들의 증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성탄을 경험한 두 사람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시므온과 안나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적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종교적이지만 최고의 예배를 놓쳤다. 그들은 종교한 가운데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13pc0316@gmail.com

Q: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앞으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물론 실력도 갖춰야 하지만 특히 인격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혁신학교 KIM 전도사

A: 첫째 진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진실성이 결여된 목회자들이 주변이 많습니다. 제임스 쿠퍼스가 전 세계적 경영자들 1500명에게 "당신은 상사의 어떤 가치, 개인적인 특성 혹은 성격을 발견하고 존경합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대답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항목이 "정직과 청렴"이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리더들의 핵심 자질을 다룬 앤디 스탠리의 베스트에는 2600명 이상의 최고 경영자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것을 작성한 목록이 언급되었는데 그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최고의 특성 역시 정직이

존경받으려면 진실하고 착하고 온유하며 깨끗해야

었습니다. 정직이 능력과 지성과 격려보다 우선시 된 것입니다. 정직은 마음의 절제를 말한다면 정렴은 삶의 절제입니다. 겉이 아무리 황금으로 코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심이 들어 있게 되면 회칠한 무덤이며 언젠가는 썩어서 썩은 냄새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양떼를 치고 돌보는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지만 진실과 청렴이란 훌륭한 인격이 뒷받침될 때 장기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위선으로 환수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이나 행동에서 늘 투명해야 하고 재정을 사용할 때도 늘 영수증을 첨부하고 늘 깨끗하고 투명하여야 합니다.

둘째, 착하고 온유한 심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백만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력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유익해 연구해보면 그의 온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는 이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 11:24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 심성이 착하지 않고 화를 잘내면 나중에 교인들이 실망하여 떠나고 말 것입니다. 착한 심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의 도요 섬김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싸움만하는 정치 9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닉슨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다가 예수를 만난 후 교도소 전도자로 다시 태어난 찰스 풀슨은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그 모세혈관까지 섬김이라는 피가 쉬지 않고 돌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는 것은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말합니다.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이나 그가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여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장자의 리더십을 상실했습니다.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서 능력있게 잘 목회하던 목회자들이 여자문제로 스캔들이 나서 교회가 시끄럽고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스의 프랜시스는 '백성의 통치자에게 보내는 편지'란 책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청결한 눈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회자는 성결이 생명이고 성결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훔치는 사단의 전략들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에게서 성탄을 빼앗기 위해서 집집마다 준비한 성탄의 장식들, 꽃, 양말,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심지어는 성탄음식까지 다 훔쳐서 동굴에 감춘다. 그리고 산 위에서 마을사람들이 슬퍼할 것을 기다리는 심술을 부린다.

세상에는 이야기의 주인공 Grinch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 성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성탄을 훔치고 방해하는 최고의 존재는 사단이다. 사단은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에도 성탄의 기쁨을 빼앗는 활동을 한다.

사단이 크리스마스를 훔쳐가는 전형적인 방법들이 있다. 사단이 첫 번째 성탄에 썼던 방법인데 오늘날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성탄을 훔쳐감으로 우리가 성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

첫째, 사단은 교만한 선입관을 통해서 성탄을 훔쳐간다.

성탄을 훔친 첫 번째 사람은 여관 주인이었다. 예수님이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우셨다(눅2:7). 그는 마리아와 요셉을 영접하지 않았다. 시골 베들레헴의 여관주인은 물론 사정이 있었다. "빈방이 없어요!"이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거친 강보에 싸서, 짐승과 함께 잡자리를 하겠다. 정상적인 그림은 아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아기 분만을 돕는 산파들도 없었다. 이 여관의 주인은 자신을 '예수님을 도

사람들의 영혼은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다.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불필요하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좇아가다가 가장 귀한 분을 놓치고 만다. 너무도 슬픈 모습이다.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단은 시기심에 가득한 두려움을 통해서 성탄을 훔쳐간다.

성탄을 훔친 두 번째 사람은 헤롯이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헤롯 궁전으로 찾아간다(마2장).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보내어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에 메시야의 탄생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미가의 예언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한다.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갈릴리의 분봉왕이 된다. 유대인 반란을 진압한 헤롯은 로마 상원으로부터 주전 40년에 유대의 왕으로 임명 받는다. 파르티안들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후 왕국을 차지한다. 이두메 사장의 딸 마리아네와 결혼한다. 하지만 헤롯은 시기와 질투와 의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정권

은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가지 않았다. 왜? 그들은 메시야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관심의 원인은 항상 교만이다. 그들의 시스템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들의 메시야는 자기들의 돈이고, 권력이고, 권세이고, 지위이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성경이 예언한 메시야를 거부한 것이다.

넷째, 사단은 종교적 의식으로 성탄을 훔친다.

성탄을 훔친 사람들은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탄생의 소식을 전했다(눅2:8-9). 목자들은 아기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다. 목자들은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그 지경과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사람들이 없었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종교적 예식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부정하고 비천한 그들의 증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성탄을 경험한 두 사람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시므온과 안나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적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종교적이지만 최고의 예배를 놓쳤다. 그들은 종교한 가운데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

성탄을 훔친다. 성탄을 잃은 가장 슬픈 대상은 나사렛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나사렛사람으로 30년간이나 사셨다. 그럼에도 나사렛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슬픈 현실을 확인시켜준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예수님과 가족을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모습을 놓치고 말았다.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거부하고 놓치고마는 가장 불행한 사람과, 성탄을 도적질 당하고 말았다.

Dr. Seuss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그린치가 성탄의 모든 요소들을 다 훔쳐냈는데도 사람들은 성탄절 아침에 함께 손을 잡고 캐롤을 부르면서 성탄을 축하한다. 그렇다. 성탄은 우리가 성탄의 요소로 생각하는 트리나, 장식이나, 파티나, 선물에 있지 않다.

성탄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말구유도 경배의 장소이고, 성전도 경배의 장소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경배의 장소가 된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은총을 잊지 말자. 성탄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1월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월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향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월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4월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성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바전교회(오영택목사)	6월 9일 ~ 11일 명주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동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신교회(한기형목사)	7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월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중앙교회(이충일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차유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재목사) 24일 블레스 샬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8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리클 블레스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연구원 강의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2월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예배(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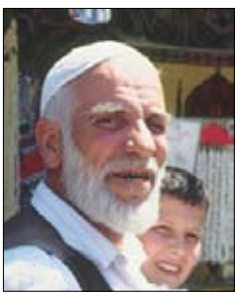
미주 갈멜산기도원 매일 기도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란의 라레스타니(LARESTANI)



라레스타니족은 이란의 남동부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은 팔스(Fars)주의 남부지방으로 라레스탄(Larestan)이라고 불린다. 라레스타니족 일부는 골짜기와 낮은 산이 특징인 페르시아만 근처 지역에 정착했다. 라르(Lar) 마을은 주요 정착지다. 라레스타니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라리(Lari)

어이며 이 언어는 대부분의 이란인들이 사용하는 페르시아어와 매우 가깝다. 라레스타니족은 페르시아의 후예들로 13세기에 라르의 페르시아 남부,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었다. 라레스탄은 눈에 띄지 않는 지역으로 페르시아 주류의 정치와 갈등에 관여된 적이 없었다. 1979년 왕정 군주제는 폐지되면서 이란은 이슬람공화국이 됐다. 이란의 시민들의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슬람의 "샤리아"법에 따라 통치한다. 오늘날 라레스탄은 이란에서 가장 가난

한 지역에 속하며, 많은 라레스타니족들은 이란 안에서 더 풍요로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삶의 모습

페르시아인 선조들처럼 라레스타니족들은 대부분 농부나 목자다. 농부들은 곡물과 감귤류 과일 등을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한다. 대추야자가 잘 자라기 때문에 주요 농작물에 포함된다. 담배, 면화, 겨자, 참깨 등은 중요한 현금작물이다. 대부분 농업에 필요한 물을 강우에만 의존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관개농업을 하기도 한다. 유목생활을 하는 목자들은 낙타, 말, 양 등의 동물들을 사육한다. 농부들과 목자들은 그들의 생산물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통해 전통적으로 서로 지지해왔으나 정부가 유목민들이 농부로서 정착하기를 권장

했기에 유목적 생활양식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라레스타니족 역사에 따르면 라레스타니족 다수가 상인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외에 화기, 벽돌, 타일을 만드는 일, 면화로 옷과 카펫을 짜는 일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일한다.

해안선을 따라 자리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날씨는 매우 덥다. 나무는 위성류, 아카시아, 그리고 침엽수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다. 라레스탄의 주된 문제는 물 공급이다. 지하수가 너무 짜기 때문에 빗물을 모으는 저수지를 많은 곳에 만들었다.

이들은 훌륭한 문학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문학 작품들이 라리어로 출판됐다. 수많은 라레스타니족 시인들 역시 이란 전체에 잘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작품은 페르시아어로 출판된다.

신앙

대부분의 이란인들이 시아파 무슬림이지만 라레스타니족은 수니파 무슬림들이 많다. 다섯 가지 이슬람 기본 교리를 가진다. 첫째, 모든 무슬림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모하메드가 그의 선지자라고 고백해야 한다. 둘째,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 매일 적어도 다섯 번 기도해야 한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에겐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넷째, 모든 무슬림은 특별히 라마단 기간 동안 의식적인 금식에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슬림은 가능한 한 적어도 한 번은 메카를 성지순례 해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레스타니족은 상당한 물질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라레스탄은 이란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한다. 또한 신선한 물의 공급이 부족해 지역 성장과 개발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농업에서 특별히 그러하다.

라레스타니족은 물질적 필요도 크지만 이보다 영적인 필요는 더욱 크다. 선교에 있어 이란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닫힌 나라에 속할 것이다. 이란에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들은 거의 없으며 선교사는 들어가는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무자비하게 박해 받는다. 결과적으로 라레스타니족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없으며 라리어로 제공되는 기독교 교재는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플로리다 흑인교회에 'KKK' 스프레이 등장

미국 플로리다 주 크로포드빌의 흑인 교회 벽에 스프레이로 'KKK' 글자를 쓴 사건이 발생했다고 USA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와콜라 카운티의 마운트 올리브 침례교회 구성원들은 지난 수요일 밤 삼가대 연습을 위해 교회에 갔다가 교회 측면에 스프레이로 'KKK'라는 글자가 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지역에서 이번 주에만 세 번째 발견됐다. 마운트 올리브 교회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뉴브릿지소망성교회침례교회와 필그림제일침례교회의 표지판에서도 'KKK' 글자가 발견됐다. FBI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 협회(NAACP) 콜라카운티 엔지니어 로지어 회장은 "아직도 이런 일 발생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이 같은 범죄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 랜드리 NAACP 플로리다 지회 부회장은 "인종차별이 내 생애 중에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인종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헤이즈 마운트 올리브 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 우리는 가족"이라며 인종 갈등 해소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지난 목요일 뉴브릿지 소망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이집트서 공식 개종신청 기독교인 5년형 직면

기독교로 법적인 개종 신청을 한 첫 번째 이집트인 모하메드 헤가지 씨가 2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이집트 북부 만야지방에서 '반 기독교시위 불법 촬영' 혐의로 투옥된 상태로 5년 징역형에 직면해있다.

변호를 받고 있는 카람 고브리알 변호사는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

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고브리알 변호사는 "헤가지 씨가 구금된 진짜 이유는 2007년 공식적으로 개종 신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월드 워치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헤가지 씨는 십대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기독교 이름은 비쇼이 아르미야 불루스다. 2007년 8월 기독교로 정식 개종신청을 했다. 콕터 기독교TV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해 왔다. 아내는 결혼 후 개종했다. 아내와 자녀는 유럽에 망명해있는 상태다.

IS와 보코하람, 지난 1년간 각각 1만명 이상 살해

나이지리아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에 의한 사망자 수가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사망자 수와 비슷해지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외교협회(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CFR)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 까지 보코하람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약 10,340명에 이른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같은 기간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의 수는 10,733명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된 보코하람은 약 10년 전 이슬람 성직자 무함마드 유수프(Mohammad Yusuf)에 의해 창립된 단체로서, 서양 교육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단체의 이름도 '서구식 교육은 죄'라는 뜻이다.

유수프는 나이지리아의 도덕적·정치적 붕괴의 원인이 서구식 교육에 있다는 주장한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지하드(성전)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살라피운동 출신이다.

외교협회의 존 캠프벨(John Campbell) 선임연구원 "국가의 안보위원회에 따르면, 살인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보코하람 대원들이며 살해당한 이들은 대부분 무고한 시민들"이라고 전했다.

외교협회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망자

수 보고가 있지만, 전체 사망자 수는 부정확하고 수치도 서로 다르며, 언론에 의해 정치적으로 부풀려진 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계성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국제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IS를 상대로 한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나이지리아에서는 보고하람이 거대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인 79% "크리스마스, 더 예수 중심적이어야"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12월 둘째 주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가 보다 더 예수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인들의 63%가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 가야 한다"고, 79%는 "크리스마스는 보다 더 예수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70%는 "기독교적인 크리스마스가 더 좋다"고 했다. 56%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했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 에드 스테처(Ed Stetzer) 대표는 "이 결과를 보고 매우 기뻐다. 특히 많은 이들이 현재 만연하고 있는 'X-마스'나 '해피 홀리데이' 등의 단어에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했다. 난 다른 누구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가치있게 생각한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신한 말들이 우리의 증거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항상 하고 있다"고 전했다.

86%는 "공립학교 뮤지컬에서 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2%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12%였다. 이 항목에 여성은 89%, 남성은 83%, 서부는 80%, 동북부는 90%, 남부는 88%가 동의했다. 18-34세는 80%, 35세 이상은 90%가 동의했다.

그러나 성육신 혹은 삼위일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56%에 응답자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전,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다"고 믿었으며, 29%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15%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동북부는 64%, 중부는 44%, 서부는 52%였다.

18-44세의 경우, "예수가 탄생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약 48%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44%가 동의했다. 그러나 44세 이상에서는 동의한 이들이 64%로 증가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70%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64%, 타종교인들은 52%, 무종교인들은 31%였다.

교황, "동물들도 천국갈 수 있다" 논란

교황 프란치스코가 동물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보수적인 가톨릭에서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탈리아 소식통에 의하면, 교황은 지난달 26일 일반 순례객들이 알현하는 자리에서 "전 우주가 새로워지고 악과 죽음의 모든 흔적들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는 점에서, 성경은 새로운 천국과 이 세상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이미 사실상 존재하는 변화와 성취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우주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의 소멸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것들에게 충만한 존재감과 진실,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고 덧붙였다. 교황의 이 발언에 대해 현지 언론 코리예레 델라 세라는 27일자 교황청 전문기자의 기사를 통해 "구원과 종말론적 팔복에 대한 소망을 동물과 모든 피조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주일 미사에서도 교황은 자신의 강아지를 잃어버린 한 소년을 위로하며, "천국에서 강아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성 안에서 우리의 동물들도 다시 볼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톨릭 신학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같은 언급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수회 소속 사제인 제임스 마틴(James Martin) 목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교황은 천국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미조리주스프링필드 에워치한 PC USA에서독립한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에서 다음과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1.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노선을 따르는 장로교목사
 2.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으로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이상학위를 소지하신분
 3. 연령이 40세-50대초반이신분
 4. 3년이상 이민목회경력(부목사포함) 을포함하여 총목회경력이 5년이상되신분 (미국정규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친기간을 이민목회기간으로 인정할수있음)
 5.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가능하신분
 6. 2중언어(한국어/영어)가가능하신분

- 제출 서류**
- * 이력서(한/영각 1부)
 - * 자기소개서(가족소개및가족사진포함)
 - * 최근 6개월내설교 2편(해당 CD/DVD)
 - * 최종학력증명서 와 목사안수증명서
 - * 목회비전 및 신앙고백서

제 출 처 * 우편: 청빙위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
1559 S. Grant Ave. Springfield MO 65807

*Email:kpcs.callingtoMO@gmail.com

- *기타사항:**
- 1.제출된서류는 비밀을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2.서류심사를 통과하신분께 개별연락 드립니다.
 - 3.문의:청빙위원장 김태수장로 (417-894-8329)
청빙위원 김인숙집사(417-683-0551)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영 어 :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 신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61)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영역주권'을 선포한 카이퍼

영역주권(領域主權)(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이란 말은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용어는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또 이 용어를 해석하는 것도 힘들다. 하지만 카이퍼가 주장한 영역주권은 칼빈주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지름길이기도 하며, 카이퍼 사상을 이해하는 핵심 용어이기도 하다. 우선 영역주권을 선포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나 사회나 학문, 예술, 교육의 모든 분야가 구조적으로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체계를 갖고 있다면 개혁주의자들이 자기의 정체

의 꿈이었다. 드디어 카이퍼의 꿈이 이루어져 1880년 10월20일에 뿌라야(자유) 대학교를 개교했다. 그날 카이퍼는

하고 있었다. 더구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가 철저한 인본주의와 현대주의 사상을 지원하고, 또한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등 종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카이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의 도구이며 모든 삶이 영역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이미 그의 정신적 스승인 흐룬 반 프린스터(G.Groen Van Prinsterer)가 주장했고, 이전에는 독일의 루터교 철학자 스타알(Stahl)이 주장했던 사상이다. 그런데 카이퍼는 이날의 연설에서 흐룬의 영역주권 사

수 있다. 특히 스타알(F.J. Stahl,1802-1855)은 그의 글들을 통해서 영역주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발견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회의 여러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일조를 했다. 그가 말한 영역은 교회뿐 아니라 국가나 가족 같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타알의 논리는 그저 학문적인 시도에 불과했다. 한편 영역주권 사상은 흐룬 반 프린스터에 와서 더욱 발전시켰다. 인간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구체적 생활까지도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

시작되었다. 카이퍼는 영역주권 사상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고 학문적 체계를 세워 대중들에게 도전했다. 영역주권이란 영어로는 Sphere sovereignty라고 하는데 실제로 카이퍼가 채용한 이 말은 화려스러운 크링(Kring)이라고 했다. 크링이란 말은 사이클 곧 원(圓)을 의미한다. 원이란 반드시 중심이 있다. 원이 두 개란 말은 중심이 둘이란 말이고, 원이 셋이란 말은 중심이 셋이란 말과 같다. 모든 원에 중심이 없다면 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고,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영역은 고유한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은 다른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역에 주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중심이 하나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법칙 있어 기본적 칼빈 사상에 폭넓게 적용 구체화시켜

영역주권 선포 배경

카이퍼는 오래 전부터 고등교육 즉 대학을 세우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확실적인 국가가 주도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대학교에 반기를 들고 순수한 복음적인 학교,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대학을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국

성을 지키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그래서 카이퍼는 정부로부터 자유롭고, 교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학,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학문의 전 분야에 중심이 되는 대학을 세우는 것이 그

총장 취임 연설에서 영역주권 사상을 선포했다. 카이퍼의 총장 취임연설은 가히 화란과 유럽에 폭탄연어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당시는 국가 이상주의 또는 국가우상주의가 판을 쳐서 국가가 교회나 개인의 신앙, 교육 등을 모두 장악해서 개인의 자율권이 박탈당

상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제화 했다. 영역주권 사상이 체계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원리로 제시되었다. 카이퍼 박사의 앞에서 영역주권을 주장했던 스타알이나 흐룬 반 프린스터는 19세기 말엽 스위스의 대부흥운동(Swiss Revell)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전반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영역주권이란 말이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1880년 뿌라야 대학교 개교 시 총장수락연설에서

영역주권의 원리도 칼빈에게서

카이퍼가 1880년에 주장했던 영역주권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생각하기로 하고, 카이퍼가 그의 멘토로 삼고 있는 칼빈도 영역주권에 대해 말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즉 칼빈과 칼빈주의를 제창한 카이퍼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10면으로 계속)

칼럼 음악목회 (42)

기독교문화의 배경과 방향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구약시대의 기독교문화는 형식 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음악의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음악이 종교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12절-14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

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함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었듯이 음악이 예배의식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오케스트라와 수천명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은 오늘날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찬 감동적인 영적 체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

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식에 매여 있는 찬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의 기독교문화는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매우 상이한데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시대에는 대규모의 찬양대가 오케스트라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성령운동과 더불어 소그룹 또는 개개인의 신앙의 표현으로 무반주음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세를 거쳐 오면서 무반주 다선음악의 형식이 아주 발달하여 아펠라 합창음악이 꽃을 피웠던 시기를 지나 바로크시대로 접어들

면서 다시 기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오케스트라 형태를 갖춘 것은 하이든과 베토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로 클래식 음악이 발달하였고 전기, 후기 낭만파시대를 지나 민족음악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 중세시대 문예 부흥을 통해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중심이 인본주의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세속음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세속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적인 색채와 내용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예부흥 이후로 모든 장르의 문화가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아주 세속적인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문예부흥 이전에는 교회문화가 세속문화를 이끌어 갔었으나 그 이후로 세속문화가 발달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세속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문화가 세속문화에 비해 훨씬 뒤 떨어진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날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CCM도 세속문화의 장르를 모방하여 교회문화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테크닉이나 그에 수반하는 장비 등에서 면에서 세속음악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속하게 흉내 내는 정도 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음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몇몇 교회가 시도하는 뮤지컬도 그렇습니다. 뮤지컬의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 브로드웨이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살면서 보고 배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양새만 복사해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는 것이면 그것이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뮤지컬 또한 학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규모만 크게 하고 돈만 많이 들여 세트와 조명 소도구 동물까지 동원하면 대단한 작품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문화를 저급화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엄청난 헌금을 쏟아부어 교회당만 크게 지으면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세속뮤지컬의 발전은 아주 대단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들이 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로 놀라운 작품성을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문화도 비록 출연자의 수가 적고 제작비용이 적어도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성이 있어야 하고 연출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기독교문화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추어 수준으로는 학회회 밖에는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하고 기독교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인을 찾아 그들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서부(CA)교회안내</h2>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반석(목회):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ll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5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20 주일3부예배: 오전 9:40 주일4부예배: 오전 11:10 주일5부예배: 오전 12:30 주일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Ave.,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한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rock@gmail.com</p>	<h3>남가주리더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h3>남가주사망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10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청년부) 주일: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부예배: 오전 1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동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okpc.org</p>	<h3>동문교회</h3> <p>담임목사: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pc.org</p>
<h3>중앙선교회</h3> <p>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방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품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2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Marquez St., Bk La., CA 90033</p>	<h3>드림교회</h3> <p>담임목사: 이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nim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45 주일예배 5부: 오후 3:00(청년) 주일예배 6부: 오후 5:00(청년) 목요일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elpkp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Ave., La Habra, CA 90631</p>	<h3>브리지교회</h3> <p>담임목사: 장세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213)245-8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h3>남가주삼성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신현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1부: 오전 9:30(토) 영어2부: 오전 11: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980-9800, Fax: (562)980-6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p>	<h3>새천양교회</h3> <p>담임목사: 변운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yon@gmail.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6289 Ball Rd., Cypress, CA 90630</p>	<h3>새생명선교회</h3> <p>담임목사: 김만수 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안다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2:00(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5:30 목요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370-5200, Fax: (310)370-5200 2720 Montrose Ave., Glendale, CA 91020</p>
<h3>얼바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정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h3>윌셔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4부예배: 오전 11:3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가족회: 3655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w.com / e-mail: pastor@cornestonew.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20 2422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200, Fax: 310-370-2009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창조과학 칼럼 (216)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25) 인구 모델 연구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과학지 내처(Nature)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169세대 5000년뿐이다(Modelling the recent common ancestry of all living humans. Nature 431:562-566, 2004). 수억 년의 고생대-중생대-신생대와 수만 년의 구석기-신석기-청동기의 역사를 사실로 배워왔던 사람들에게 이런 연구 결과는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곧 이 결과가 동의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이 연구 결과를 대단히 흥미롭게 여겨 그 논문이 게재된 내처지의 뉴스란에 그 의미를 설명할 정도였다(Pedigrees for all humanity. Nature 431:518-519, 2004).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의 성씨(姓氏, family name)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각 문화권에 있어 일반적인 현상은 왕족이나 귀족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비해

레이션을 하였다. 이 방법은 가계를 따져보는 방법이므로 유전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비해 오차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분자생

내처지의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은 신선하고 명쾌하다. "유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계적인 측면에서 현 인류의 조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발견은 놀라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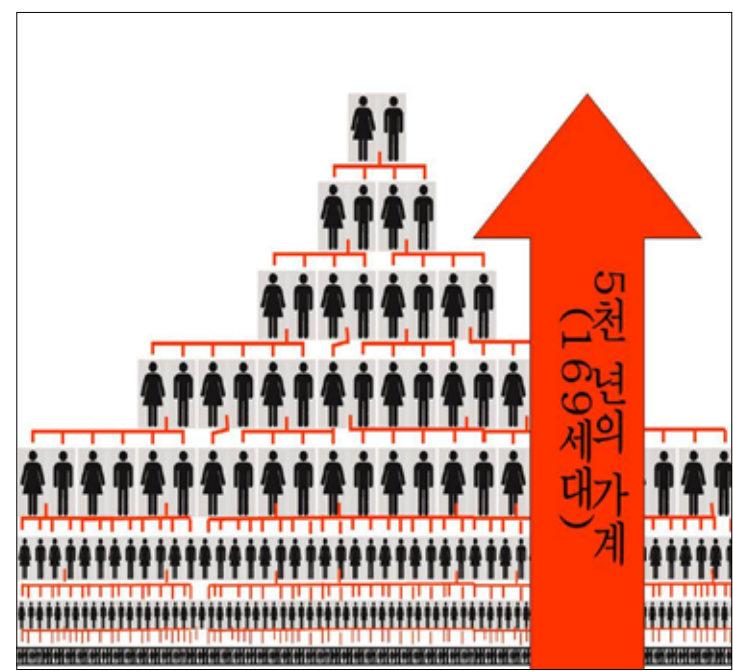
명에서 시작하여 평균 인구증가율이 0.5%였다면 얼마 만에 70억 명이 될까? 불과 4408 번째 70억(7x10⁹)명을 돌파하게 된다. 인류 역사가 5만 년만 되어도 인구는 4x10¹⁰명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70억 명이 되는데 20만 년이 걸리려면 인구 증가율은 0.01%가 되어야 한다. 이를 경우 인구가 2명에서 3명으 되는데 무려 3673년이 필요하고 네 명이 되려면 6292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진화론적인 역사에서는 현재의 인구를 어떤 방법으로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어렵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이다. 노아는 지금부터 거의 정확히 5,000년 전 인물이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새로운 분자생계의 시기가 인류 역사 6,000년

내처지, 가계 조사로 인류역사 169세대 5000년으로 발표 남녀 2명에서 평균인구증가율 0.5%면 4408번째 70억 명

더 오래 전부터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구려, 백제, 신라의 고위 관리들만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가 고려 말과 조선 초 무렵부터 보통 사람들도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는 가문이든지 그 가계가 그 길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 가계를 삼국 시대부터 시작되므로 아무리 길어도 100세대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필자가 강의할 때 만난 가장 오랜 가문은 76세대였다. 단지 2333년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200세대가 될 수 없다.

내처지에 발표된 169세대 5000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 연구자들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으로 가정하였다(현재의 페르다임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으므로 이 페르다임에서 벗어나면 논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채택되기 어렵게 된다). 성경에 의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페소포타미아(이라크) 지역에서 퍼져 나갔으므로 그 결과에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세계 각 지역을 나누어 이동 경로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심지어 항공기 생김 시점과 인구의 이동량까지도 감안하여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조상과 최초 조상을 찾아내도록 시물



에서 소개했듯이 돌연변이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각 부위마다 돌연변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모계 중심의 인류 역사(10-20만년)와 Y염색체를 분석한 부계 중심의 인류 역사(24만-58만 년)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에는 이 둘의 연대를 어떻게든 서로 맞추어 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http://en.wikipedia.org/wiki/Y-chromosomal_Adam). 그러나 족보는 한 세대가 거의 정확해 있으므로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에 도달한다: 우리가 무슨 언어를 사용하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 양쯔 강변에서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 유크라인 대 초원에서 처음으로 말을 길들였던 사람들; 남부 아메리카의 숲에서 커다란 나무노를 사냥했던 사람들; 그리고 쿠부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 현재의 인구를 생각해보도 인류의 역사는 수십만 년이 될 수 없다.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이다. 만약 최초 조상 남녀 2

을 말해주고 있고, 앞에서 설명한 내처지의 가계를 통한 분석도 5,000년의 인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가계의 경우 성경 역사와 약 1000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 인류가 노아에서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인류의 모든 문명도 수천 년 이상 된 것이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두가 BC2000년 경 이후에 갑자기 나타났다. 인류의 유전정보를 읽어본 결과 인류는 한 혈통임이 확인되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아담에서 시작된 6,000여 년의 성경 역사가 사실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제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게 된다. 성탄절의 의미는 창조된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어야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첫 아담이 반역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아담이 되어 오셨기 때문이다. 죽을 날 잡아 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성도들 마음에 사무치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원망하는 자들의 결국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관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출 16:7)

선악과를 따며 우리는 눈으로 범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 보임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리 좋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순간 죽는다 아우성치는 것이 노예근성입니다. 10가지 애굽인들에 대한 재앙과 홍해를 갈라 건넌 기적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던가? 그 기적을 감격하며 드높이 찬양한지 과연 얼마나 지났나? 눈에 당장 마실 물이 없고 양식 떨어 지니 죽는다고 난리입니다. 돌바위신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이 부추기는 대로 쏟아놓는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걱정거리만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해도 꾸짖지 않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 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아십니다. 내가 원망하기 이전에 나의 필요를 소상히도 아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굶어죽을 지도 모를 불안감으로 조금이라도 더 만나를 공저는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모든 불평을 들으며 불평을 하지 않더라도 저 많은 입들을 아찌 먹이고 입힐지 제일 고민의 짐을 진 이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불평에 원망에 불안이 엄습해 오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이들은 오합지졸 백성들입니다. 광야 길에서 놀라운 기적을 한 없이 베풀어오는데는 받을 때 뿐 도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완악한 군중들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실력만 연마하듯 그 시선이 염려거리에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불안감이 심한 이가 목소리를 크게 내어, 안그래도 불안한 이들의 두려움을 가중시켜 모세가 심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급승하기를 만들어 난잡한 광란과 티로 두려움을 떨치려 무리수를 두던 저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나는 전체의 머리가 200여 만이고 모든 여정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지로 데리고 다 머리가 수만 명인 200여만 명이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의 나이든 1세대는 여호와와 갈렙 외에는 불평하다 원망하다 좋은 시절은 못 만나고 다 죽고 또 죽고 다 죽어나갑니다. 갑자기 죽는 이들이 눈에 들어오니 정신이 반짝 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이 그리운 노예시절을 흠모하던 1세대들은 우상을 처리 못하고 죽어가고 차라리 애굽을 모르고 광야에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가까이 피부로 체험한 2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에 빠지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뿐인가? 내 눈에 보기에 흠족해야 안심하기도 하고 쉬 불안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에베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광야 같은 이민목회 길에 제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충족되도록 채워주셨습니까. 내 인생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폭풍이 몰려오면 주님의 깊은 심중을 알고 믿음위에 서있기보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회개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참으로 민망합니다. 하늘의 양식보다 없는 것 계산이 얼마나 빨리도 들어오는지요?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깊은 뜻을 헤아려보며 다시금 불안해하는 마음을 꾸짖어 봅니다. 이제 다시금 새로운 모퉁이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불안을 떨치며 주님께 꼭 기대어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당신만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미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6:00 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5:45 Tel: (718)639-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n.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43-1977, Fax: (516)84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YM 영어 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718)339-3021, Fax: (718)507-6376 210-10 Horace Harding Expwy, Bayside NY 11364		뉴저지포스트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dog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 영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all.com Tel: (516)333-1757, 목장(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사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안례: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mchurch.org		에베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에사라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5:00 영모임: 오후 1:00 Tel: (516)584-4088, www.joumkoa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 11746		좋은목사교회 담임목사: 김신영 주일예배: 오후 2:00 영모임: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O.T.모임: 오전 9:30(월) Tel: (516)584-4088, www.joumkoa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 11746		린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r, 25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na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찬양예배: 오후 5:4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ua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ua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18AS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주일학교: 오전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ng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ikr@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목회서신

“무슨 생각 하세요?”



여승훈 목사
(시카고 가나안교회)

평화를 필요로 하는데 평화를 맞출 수가 없다. 안식을 찾는데 안식을 찾을 수가 없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 박죽 되어서 혼란스럽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부분이다. 평

화와 안식이 비어 있으므로 내면이 뒤죽박죽 되면 내면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진실함과 깨끗함이란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가리킨다. 집안이 정소가 되지 않아서 이곳

저곳에 물건들이 널려 있고 어지러져 있다면 어떻게 됐는가? 그런 상황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산란하겠는가? 심할 경우에는 집안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싫어지게 된다. 내면의

진실함과 깨끗함은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맞보는데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렇다면 내면의 진실함과 깨끗함은 어디서부터 찾아오는 것인가? 답을 얻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의 진실성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볼게 된다. 한마디로 사람의 진실성 여부를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언제나 정확한 판단의 가능자는 되어주지 못함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언제든지 변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진실성이 유지되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

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 안에 진실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 안에 있는 더럽고 썩어지는 어둠과 탁한 “영의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의 인격성과 예수의 완성하신 사역을 상기시켜주고 확증시켜준다. 많은 수고와 분주함과 사역 속에서도 예수의 인격성과 그분의 완성하신 사역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진실함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은 평화의 source이시며 안식의 source이시며 진실함의 source이시다. 이 사실을 인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source가 되

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분을 빗겨나서는 평화도, 안식도, 진실함도 없다는 뜻이다. 혹시 뒤죽박죽 혼란스러움이 있는가? 커피 잔을 옆에 두고 조용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찬송가를 들으며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 보라.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맞으며 당신 안에서 혼탁한 영의 공기가 빠져 나가고 진실함과 깨끗한 영의 공기가 스며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의 시즌을 지나는 이때에 모든 것의 근원 이시며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라.

오레곤밴쿠버교연 새 회장 오광석 목사

제24회 정기총회, 부회장 강승수 목사, 고택수 장로 선출



오레곤 밴쿠버 교협 신임회장 오광석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회 제24회 정기총회가 지난 8일 오후 7시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오광석 목사를 선출했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오광석 목사(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부회장: 강승수 목사(영광교회 담임), 평신도 부회장 고택수 장로(벤델장로교회 사무). 한편 동 교회연합회는 2015년 신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장소와 시기는 신임회장단에 맡겨 통보하기로 결의했다. (기사제공: 오레곤교회연합회)



필라교협이 주최한 성탄축하 연합찬양예배 마지막 순서에서 찬양팀이 모두함께 찬양하고 있다.

“성탄의 소망과 기쁨으로 약자 돌보자”

필라교협 성탄축하 연합 찬양예배 성료

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해근 목사)는 지난 14일 오후 6시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 제2성전에서 교협 성탄축하 연합찬양 예배를 성대히 드렸다. 찬양제는 박도성(음악분과 위원

장) 사회로 몽고메리교회 듀엣, 안디옥교회 혼성중창팀, 카메라다 어린이 합창단, 사랑의교회 찬양, 영생교회 시온합창단, 구세군교회 중창팀, 초대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목회자 연합 찬양에 이어 최해근

교회연합회가 마태복음 2장 13-18절을 본문으로 “성탄의 두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헤롯 왕의 악한 소리와 어린 아기들을 잃어버린 모정의 눈물이 예수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고난의 복한 동포를 기억하며 고달픈 인생길에 기쁨과 소망의 소리로 약자들을 돌보는 삶이 되자”고 전했다. 이어서 영생교회 오케스트라의 우렁찬 연주에 이어, 중국 신주기독교회 17명의 특별 찬양팀의 찬양과 영생교회의 마르다 찬양팀, 몽고메리 할렐루야 찬양 후 연합찬양대와 관중들이 함께 일어나 “할렐루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이용걸 교협 중창팀이 축도로 마쳤다. 총무 이용도 목사는 이날 헌금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되고 2015년도 신년 기도회 및 하례회는 1월 11일(주) 오후 5시 몽고메리교회에서 만찬과 함께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바른 예배” “바른 실천” “바른 생활”

살랏장로교회 연말당회 갖고 2015년 계획

살랏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지난 14일 연말 당회를 갖고 2014년을 마무리하며 2015년을 계획했다. 2015년 새해 표어를 “바른 예배” “바른 실천” “바른 생활”로 정하고 당회 부서조직 강화의 일환으로 구역확장과 EM구역 신설을 신설했다. 또 영커플 회장에 배현해 집사, 영어덜트 회장에 전동인 형제를 선출했다. 살랏장로교회는 오는 21일에는 예년과 같이 성탄감사 찬양예배를 드리며 살랏지역 성탄연합 찬양예배에도 동참한다. 또 24일 저녁에는 전가족 찬양경연대회와 함께 성탄 축하예배를 드린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율령 교수 목창회를 열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소프라노 질 가드너와 함께 성탄송 중심의 엄청난 레퍼토리를 소화했다. 오페라 캐롤라이나 코러스 멤버가 복 사중창으로 나부코의 “바 펜 시에로”와 어빙 벌린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여러 언어로 “고요한 밤”을 불러 전세계 각국이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윤 교수는 “아무도”, “가고파”, “산아” 등 한국가곡도 불렀으며 마지막에는 가드너와 함께 “LORD’S PRAYER”를 열창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은혜경영대학 1기 졸업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GBS 1기 졸업식...33명 졸업생 배출

은혜경영대학(Grace Business School, GBS) 제 1기가 8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33명의 졸업생과 가족들, 그리고 교수들과 본 대학을 섬긴 스태프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료식을 가졌다.

은혜실업인선교회(회장 감영수 장로)가 운영하는 GBS는 성공적인 크리스천 기업인이 되기 위한 커리큘럼(기업의 사회적 책임, 마케팅 전략 및 고객가치창조, 기업전략 및 기업혁신, 선교와 비즈니스 등)

을 통해 경영지식과 비즈니스선교(Business as Mission) 정신을 이해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 기업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은혜실업인선교회는 지속적으로 유익한 세미나 및 특별강좌를 통해 크리스천 기업정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많은 관심과 요청에 따라

GBS 제2기도 개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은혜실업인선교회와 GBS에 관한 문의는 회장 김영수 장로(714-402-8490) 또는 총무 마이클라 집사(714-713-0948)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은혜경영대학)

뉴저지교협 제28회기 임원 및 실행위원 발표

뉴저지교협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준 목사) 제28회기 새 임원 및 실행위원이 발표됐다. 소규모였던 예전과 달리 협동총무 22명으로 대거 영입했으며 29명의 분과위원들을 임명했다.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병준 목사(뉴저지 행복한교회) △부회장 이의철 목사(뉴

저지 은혜제일교회), 김진수 장로(새빛교회) △총무 이춘기 목사(하나교회) △서기 엄순희 목사(레오니아장로교회) △회계 윤석래 장로(뉴저지연합장로교회) △감사 유지도 목사(땅끝교회), 강영안 장로(초대교회).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5.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1(Mon.)-13(Wed.), 2015 (New York); May 15(Fri.)-18(Mon.), 2015 (Brazil Iguazu)
- 2) Place: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Brazil Iguazu; Inquire with the Clerk of the Examination Committee :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Genesis 6:1-4
 - (2) NT Exegesis Text - Acts 9:10-19
 - (3) Thesis Topic - Discuss the necessity of denominations from a Reformed perspective.
 - (4) Sermon Text - Isaiah 40:26-31
- 3)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4)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 4.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5.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5.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candidate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9-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appropriate examination dates (New York: May 11-13, 2015 or Brazil: May 15-18, 2015) through Rev. Young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oung Kee Kim / Address: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 443-520-5242 E-mail : youngkey48@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Kil Ho Lee (718)309-3376 (kilhlee2003@yahoo.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oung Kee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목사회 임실행위 이취임식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 성탄축하예배 및 제 43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원 이·취임식이 오는 22일(월) 오후 6시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오후 5시부터는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718)938-1777, (917)558-7435, (347)721-6003

교역자 청빙

뉴저지 북부 웨인에 소재한 베다니교회(담임: 장동찬 목사, UMC)가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교단 목사안수)하고 장년목회 경력이 있으며 이중언어가 가능한 영주권/시민권 소유자로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목사 안수증명서,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본인소개서 및 목회계획서 한영 각 1부, 설교(인터넷 링크 혹은 mp파일 upload), 2명의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njbethanychurch@gmail.com). 서류 제출 마감일은 12월21일(주).

이야기가 있는 찬양음악회 “Hymn To Him”

이야기가 있는 찬양음악회 “Hymn To Him”의 첫 음악회가 오는 20일(토) 오후 7시, 맨하탄에 위치한 The DiMenna Center의 Mary Flagler Cary Hall에서 열린다. “Hymn To Him”은 찬송가만 연주하는 음악회로 찬송가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사연들을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젊고 유능한 크리스찬 음악가들이 뜻을 모아 만든 비영리 찬양음악회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휘 이태영, 소프라노 박정화, 메조소프라노 김효나, 테너 이성은, 피아노 흥현진, 강민영이 공연한다. 공연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며 티켓은 무료다.

▲문의: (646)474-4466, stagestory@gmail.com

“우리교회 반주자 만들기 프로젝트”

조한곤 교수의 “우리교회 반주자 만들기 프로젝트”인 “왕초보 키보드 교실”이 2015년 1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8주간 완성으로 열린다. △뉴욕(76-11 우드사이드 애브뉴, 엘름허스트): 월, 목 오후 2시-4시, 화, 목 저녁 7시-9시, 토 오후 1시-5시 △뉴저지(309 스테이트 스트리트, 핵켄색): 화 오후 1시-5시. 선착순 50명, 수강비는 140달러이며 1월3일까지 등록하면 120달러다.

▲문의: (347)822-4284, (646)431-1875

뉴욕일원 지난주(14일) 성탄 축하찬양 만발

지난 14일 주일은 뉴욕일원의 크고 작은 교회들의 행사가 넘쳤다. 성탄이 가까워옴으로 주로 성탄 찬양축제로 열린 행사들을 살펴보면 퀸즈장로교회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 (기사 16면), 뉴욕중부교회 2014 헨델의 ‘메시아’, 뉴욕예일장로교회 2014 드라마 ‘The King’, 뉴욕효신장로교회 자선음악회 ‘천지창조와 캐롤’ 등이다. 대부분 교회들은 성탄절 당일 성탄예배를 드리게 되며 21일 성탄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다.



퀸즈장로교회 멘델스존 ‘엘리아’



뉴욕중부교회 2014 헨델의 메시아



뉴욕예일장로교회 2014 드라마 ‘The King’

퀸즈장로교회 멘델스존 ‘엘리아’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성탄절을 기념하며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공연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자막으로 진행된 공연은 보조의자를 놓는 등 본당을 짝 채웠다.

윤원상 전도사의 지휘로 40명의 관현악대의 연주와 120명의 퀸즈장로교회 찬양대가 무대에 섰다. 바디워십팀의 무용과 조형식(엘리아), 강해영, 김유경, 소철화, 최지혜, 소유영 등 독창자도 출연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유초등부 찬양대가 찬조 출연해 참석자 모두가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

김성국 목사는 공연에 앞서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본문으로 “모든 백성이 부른 이름”이라는 제목의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관계기사 16면>

뉴욕중부교회 2014 헨델의 메시아

퀸즈칼리지 폴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의 헨델의 메시아 자선음악회는 광범국 음악 디렉터의 지휘로 Lisa Daltirus, 박영경, William Joyner, Peter Becker 등의 솔리스트들과 75명 찬양대원들이 출연했다.

뉴욕중부교회 메시아 공연은 2008년부터 1부 예연과 탄생, 2부 예수의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원한 생명 등 전곡이 영어로 공연되기에 1세와 2세가 함께하는 교제와 화합의 장, 커뮤니티 타민족들을 초

청하는 전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회측은 부모와 함께 연습하며 합창에 동참하는 자녀들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1부 공연 후 진행된 기금전달식에 앞서 김재열 목사는 성공한 3명의 사업가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이번 자선음악회의 수익금은 ‘For Hope International’, ‘한미정신건강협회’, ‘뉴욕가정상담소’, ‘Batey Relief Alliance’ 등 4개 단체에 모두 전달됐다.

뉴욕예일장로교회 2014 드라마 ‘The King’

뉴욕예일장로교회(김중훈 목사)는 사랑의 초청집회를 통해 드라마 ‘The King’을 각색해서 공연했다. 드라마는 메시아 기다림과 아가 예수의 탄생을 극화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다. 매년 드라마를 공연하고 있는 동 교회는 성도들의 열심으로 높은 수준의 성극을 만들어냈다.

김중훈 목사는 이날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본문으로 “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탄의 감동과 성경적인 교훈을 나눴다.

뉴욕효신장로교회 ‘천지창조와 캐롤’

매년 자선음악회를 열어 중남미 선교를 하는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는 올해 “천지창조와 캐롤”을 내용으로 공연했다.

중남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과 시설확충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음악회는 양근식 장로의 지휘로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합창과 독창으로 진행됐으며, 크리스마스 노래와 헨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합창됐다. 독창자는 소프라노 성이현, 테너 김정용, 바리톤 채영준 등이다. 또 동 교회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효신교회어린이합창단의 축하연주도 있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찾아가는 교협, 섬기는 교협’

제41회기 뉴욕교협 첫 임실행위, 예산안 연중계획 발표

제41회기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 제 41회기 첫 임실행위위원회가 지난 11일 뉴욕장로교회(담임 이승한 목사)에서 열렸다. ‘찾아가는 교협, 섬기는 교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41회기는 이날 2015년 예산안과 연중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덕 목사는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는 교협이 먼저 낮은 자세로 모

든 교회들을 섬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교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성탄축하 및 건물이전 감사예배: 12월 29일 △신년하례식: 1월 12일 퀸즈한인교회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4월5일 △정소년 농구대

회: 4월 △교회체육대회: 5월25일 메모리얼데이 △할렐루야 북음화대회: 7월 3-5일 △총회: 10월 뉴욕장로성장교회. 이외에 4회의 임실행위가 열린다.

회계 이광도 장로는 수입 360,552달러, 지출 360,552달러의 2015년도 예산을 발표하고 통과시켰다. 이 장로는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던 임원활동비의 현실화, 교협건물 이전에 따른 예비비 준비 등의 기본원칙으로 예산을 작성했다고 소개했다. 임원활동비는 총4만2천 달러이며 새건물 렌트비 등을 위해 1만3천여

책 2대 회장과 이사진을 역임하며 봉사한 바 있다.

2부 총회는 박진하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후 회계 보고 관캐더린 목사, 김인한 장로(상임자문위원)의 인사에 이어 회장선거에 들어가 회장에 전희수 목사, 부회장에 유상열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다.

회계보고는 아동결연과 일반을 분리해 보고됐다. △아동결연은 수입 26,553,29달러, 지출 24,775.82달러. △일반은 수입 19,823.36달러, 지출 18,318.35달러.

임하는 박진하 목사는 “기아대책이 정치성을 떠나 모두가 공유하는 사랑의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섬겨주신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인한 장로는 회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기아대책이 7살이 됐다. 그동안 우리 책무를 잘 감당해왔다. 지금은 한인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지만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미국내 사역도 감당하며 땀을 나누는 구명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신안건토의에서는 이사진 추대 문제가 논의됐으며 결과는 임원들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유상열 사무총장의 광고, 박마이클 목사의 폐회기도, 오태환 목사의 진교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으며 현재 콜롬비아, 페루 등 6개국에 70여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eafh.org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달러를 예비비로 책정했다.

교협산하 청소년센터 대표 송병기 목사는 신안건토의에서 청소년센터 이사장은 평년도 부회장이 자문에게 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임실행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주소록총무위원장 이종명 목사는 12월 20일까지 리스팅을 접수 마감하고 신년하례 시 주소록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헌법 일원 조항에 명시된 수석 협동총무 1인’,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회원이 아닌 다른 목사 2명의 목사가 임실행위위원을 맡는 것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임원진은 이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기에 앞서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김원기 목사(증경회장은 ‘진정한 연합을 위하여’/2:1-4)라



뉴욕교협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는 제목의 말씀에서 연합된 교협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협은 큰 교회를 맡은 김원기 목사(증경회장은 ‘진정한 연합을 위하여’/2:1-4)라

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과 교회가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한’ 교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7면에서 계속>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인간 모든 만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조차 통치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구속사(贖罪史)를 통치하시며, 역사의 종말론적 문제를 관여하시고, 다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영역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칼빈이 주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상을 몇 곳을 인용하면 이렇다.

즉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은밀한 고백로 사건을 역제하시고, 그의 하늘의 작정이 없이는 아무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신다”(다니엘주석 2권 p. 314)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은 하나님의 손과 뜻에 달렸다”(예레미야주석 3권 p. 356) “사람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의 주권적 기쁨에 따라서 강박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신다.”(시편

주석 4권 p. 243)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기독교강요 1.14.17)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면 신자들이 위한 구원은 없다”(하박국, 학개 주석 p. 86) 등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개인의 신앙, 공적인 삶 등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교회

의 두 권한을 따로 주셨다. 시민정부를 부라고 할 수 있는 세속권제로 사회를 평안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속적 정의와 도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는 인간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세워주신 기구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카이퍼의 영역주권의 뿌리도 결국은 칼빈에게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카이퍼는 칼빈의 주권사상을 더 세분하게 발전시키고 구체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카이퍼가 주장한 영역주권 사상이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다든가 또는 그의 사상이 낙관주의적이 아닌가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여권원 사상도 결국은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에 기인했고, 그러한 이유로 칼빈주의와 신칼빈주의 사이에는 연속성을 가진다. 칼빈의 사상이 기본이라면 카이퍼는 보다 폭 넓게 적용하고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1880년 10월20일 카이퍼 연설문 ‘영역주권’에서 그의 뜻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물론 영역주권 사상은 그 전후해서 그의 여러 저작들과 팸플릿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카이퍼가 영역주권을 그토록 뜨거운 가슴으로 외친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카이퍼의 영역주권을 소리높이 증거하는 것은 지금 전혀 새로운 칼빈주의 대학을 개교하는 자리이다. 카이퍼에게는 고등교육과 수준 높은 연구가 대단히 필요했다.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을 드러내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회와 문화를 재구성하고, 보통 사람들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신장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카이퍼도 이러한 배경으로 영역주권의 논리로 힘차게 외쳤다.

<다음호에 계속>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 새 회장에 전희수 목사

11일 정기총회, “가족 같은 행복한 단체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기아대책, 회장 박진하 목사)가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전희수 목사, 부회장에 유상열 목사를 선출했다.

전희수 목사는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며, “기아대책이 빵과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교파와 교회로 이루어진 단체지만 전임회장들이 해 온 것처럼 가족 같이 행복한 단체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린 총회는 1부 예배, 2부 회의로 진행됐다. 예배는 전희수 목사 인도로 기도 임명남 목사, 설교 황영진 목사, 축도 김영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진 목사는 로마서 5장 19-21절을 본문으로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목사는 “한 사

람 아담이 순종치 않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며, “기아대책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역”이라고 말했다.

황 목사는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목회든, 기아대책이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바쳐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전심을 다하자”고 말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아동 한 명이 그 나라의 리더가 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이 사역에 전심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오는 28일 파송예배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황영진 목사(선한목자교회)에게 선교사 파송패를 수여했다. 황 목사는 기아대

OC평신도연 주최 'OC연합의 밤' 대성황

OC교협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OC평신도연합회 주최 OC연합의 밤 행사에서 러브위스퍼가 찬양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는 남가주지역동문 송년모임을 열었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집사)는 14일 오후 5시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동보성 식당에서 'OC 연합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정장섭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순서는 송정명 목사(미기총 총경대표회장, 미주복음방송사장)가



라크마 주최 온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회에서 참석자들이 할렐루야를 함께 부르고 있다

온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회

라크마 주최 3명에 장학금 총 6천 달러 전달

라크마(이사장 최승호)가 주최한 온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회가 12월 저녁 7시30분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그레이스리 호스피스 협찬으로 어려운 역경 가운데 환경을 초월 인간승리를 이룩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는 취지로 마련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1등 이해솔(라이스대학 바이올린 전공), 2등 신선미(월드미션대학원 성악전공), 3등 정재호(USC합창전공/터키 선교사)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각 3천달러, 2천달러, 1천달러가 수여됐다. 또한 이들 3명이 특별공연을 해 이날 참석한 청중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재학생

'가장 기쁜 소식'(눅28-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CTS스트림앙상블의 연주, 샬롬여성합창단(단장 이영희)의 특송, 영김 주하 원의원과 스티브황보 라팔마시의 원의 축사가 있었다.

2부 만찬과 함께 열린 작은 음악회는 윤우경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갑수 목사, 조영석 전도사, 러브위스퍼(이수정, 이진미), 김용훈, 테너 이준실 등이 출연해 OC 연합의 밤을 파스하게 수놓았다.

이날 행사는 박갑수 목사의 인도로 성영롱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전장한과 안효정 씨의 사회와 최승호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음악회는 테너 오위영 목사와 라크마 채임버 콰이어가 'A Christmas Festival', 'Panis Angelicus', 'Mile Cherubini in Coro'를 불렀으며, 라크마 채임버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채영석의 지휘에 맞춰 스타워즈를 연주했다.

또한 가수 글로리아리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 'Let it go'를 불렀으며,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씨가 'Cinematic Rhapsody'를 라크마채임버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재즈싱어 프랜시스김이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를 불렀다.

이날 음악회는 라크마채임버콰이어가 존 루터의 글로리아와 헨델의 할렐루야를 부른 뒤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미주동문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미주동문회(회장 정종원 목사) 동문모임이 오는 22일(월) 오전 10시30분 아이엠교회(담임 정종원 목사 1000 Venice Blvd. LA)에서 개최된다. 회비는 20달러.
▲문의: (323)733-9101 회장, (213)393-9136 총무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입당예배
얼바인아름다운교회(담임 이동준 목사 17702 Cowan, Irvine, CA) 입당예배가 오는 21일(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949)250-1111

쉐이크시티 크리스마스 콘서트
쉐이크시티(Shake City)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20일(토) 오후 6시 LA 우리교회(담임 니콜라스리 목사 701 S. Catalina St, LA)에서 열린다. 이날 한별 목사(순복음신학대학교대학원 총장)가 말씀을 전한다. 쉐이크 시티는 UCLA, USC, Colburn, CSUN, SMC 등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1.5세, 2세 대학생 연합찬양팀이다.
▲문의: (213)382-4456



더텐트의 파킹랏콘서트 1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헤이필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 모습

성악, 기악, 국악, 찬양, 캐롤, 가요...

더텐트, 파킹랏콘서트 1주년 공연 성황

거리문화사역단체 더텐트(대표 다니엘양 목사)의 12월 파킹랏 콘서트가 13일 오후 7시 콘서트 장소인 거주영어학교 1층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Oh Happy Day'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크리스마스 특집이자 파킹랏 콘서트 1주년 기념으로 열렸다.

신동희 목사(대흥장로교회)의 사회로 열린 콘서트는 CCM가수 이정영, 힐사운드(허지애 & 장슬기), CCM루키 김용훈과 홍세영, 스포라노 어유경, 재즈싱어 전은선, 크리스천 밴드 해브스밴드, 헤이필드 청소년 오케스트라, 색소폰 앙상블, 유희자 국악무용연구소 국악팀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성악, 기악, 국악, 찬양, 캐롤, 가요 등 다양한 장르로 마련됐으며, 이날 콘서트는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에서 후원한 통돼지 바베큐를 비롯해 주최측에서 마련한 신선한 커피와 음료, 그리고 핫도그를 함께 나눠줬다. 특별히 출연자들의 진지한 무대

매너와 응원문구가 쓰여진 피켓을 들고 환호하는 청중들의 모습, 그리고 1주년을 축하하는 청중들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모습 등은 1주년이 된 파킹랏 콘서트가 주말 저녁 한인 타운 한복판에 크리스마스철의 공연문화를 뿌리내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게 된 듯.

하지만 지난 콘서트에 비해 규모가 커진 이번 콘서트의 집중력이 떨어진 점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텐트 관계자는 "1년 동안 예산을 뛰어넘을 정도로 파킹랏콘서트가 성장하게 됐다. 오늘 공연까지 많은 연주자들이 참여했다. 출연진 모두가 최고의 공연을 펼쳐주셔서 감사한다"며, "2015년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보다 알찬 공연을 만들어가겠다. 많은 기도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더텐트는 파킹랏 콘서트를 함께 여어나갈 재능기부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음향시스템, 주차, 무대설치 등이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 총동문화 동문송년모임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화(회장 노석 목사)의 2014년 남가주지역 동문송년모임이 15일(월) 오후 6시 세리토스에 위치한 가든부페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LA와 OC, 그리고 LA동부지역 등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조촐하게 열렸다.

동문화 총무 박정기 목사는 "올

해 처음으로 지역모임으로 시작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인만큼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화는 1월 26일(월) 총동문화 신년모임을 갖는다. <박준호 기자>

"내년에도 이웃에 손 내밀 수 있기를"

2014년 소망소사이어티 종무식 및 송년모임

2014년 소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소망소사이어티 종무식 및 송년모임이 지난 8일 소망홀에서 있었다. 6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소망소사이어티 줄리박 이사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이창순 목사가 축복기도 했다.

또한 네이비스USA에 소망우물 후원금 49,500달러(아프리카 차드 우물 15개 후원금)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모아진 소망우물 후원금과 지난 8월 한국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해전교회에서 후원한 우

물 후원금이다.

이날 유분자 이사장은 "그동안 소망소사이어티에 도움을 준 여러 평생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 및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며, 2015년도 소망소사이어티와 함께 한인연장자는 물론 주변의 이웃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무식 및 송년모임에는 CGN TV 본부장 강일하 목사, 국내 이비스USA 사동환 이사장 등이 참석해 소망소사이어티와 함께 비전을 나누기도 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2014년 소망 소사이어티 종무식 및 송년모임이 6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수목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Briarwood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일): 오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성서학당: 오후 8:00 대학원: 오후 1:30 청소년영양: 오전 10시, (8월) 오전 11시 유치, 유년: 오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고, 중, 고부예배: 오전 11:00 Tel: (704)634-0900 / 0998(렉스클링)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수요성서학당: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attle.org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lccs.org
앵커리지영림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림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주일 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3)420-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josephvision21.org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수요예배: 오후 2:00(월-토)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5-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목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rc.org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ikpcz.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www.kucj.org

한기총·한교연 분열후 첫 연합사업

일만교회 백만인 기도운동...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양 기관으로 분열된 지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합사업을 벌인다.

양 기관을 비롯해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등 한국교회 주요 단체와 교단들이 참여한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일만교회백만인기도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교회가 평화통일 기도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에는 이영훈·양병희 대표회장 등 각 단체 대표와 교단 총회장 28명이 선임됐다. 운동본부는 매일 정오에 1분 이상

각자의 처소에서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또 이웃 섬김과 교류를 통해 연합과 일치사업을 모색하고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는 정관을 통과시켰다. 운동본부는 내년 1월 미국 뉴욕에서 포럼을 개최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기총과 한교연 대표회장이 특정 사업에 힘을 합치기로 한 점이다. 한교연 관계자는 "한교연이 출범한 이후 양 기관의 감정의 골이 깊어 교계사업에 함께 추진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영훈·양병희 대표회장 체제 이후 교계의 관심사안에 대해 양 기관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연합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냉랭했던 양 기관이 화해무드를

보이는 것은 이영훈·양병희 대표회장의 친분과 연합에 대한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갈등이 심했던 전임 대표회장들과 달리 취임 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지난날 22일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대성회'에서 자리를 함께 하는 등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한교연은 오늘 행사를 시발점으로 이단문제를 제외한 어떤 연합사업도 한기총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 대표회장이 이날 다른 모임의 설교 일정으로 기차편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도운동의 취지를 보고 공동대표직을 수락했다"며 연합사업 동참의사를 밝혔다.

양 대표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구동독 라이프프리 니콜라이교회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연 것이 독일통일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한국교회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일만교회백만인기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한국교회 연합(한교연) 제4대 대표회장(장양병희·영안장로교회) 목사 취임감사예배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목회자와 성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 대표회장은 취임인사말에서 "한교연이 할 일은 한국교회를 연합하고 건강하게 부흥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라고 교회연합운동에 역점을 둘 것을 다짐했다. 또 미래 지향적인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준비를 위해 힘을 모은다.

1. 북녘 동포들을 위해 매일 쉬 없이 기도한다. 2. 한반도 통일을 위한 범기독교 기도운동을 온 세계에 확산시킨다. 3.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4.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고 대북 지원사업과 탈북민돕기운동을 범교회적으로 전개한다. 5.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통일 준비를 위해 힘을 모은다.

“연합 통해 부흥 성장의 디딤돌 되겠다”

양병희 한교연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신의 뜻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지도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장 목사는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며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갈라진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부디 추락한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교회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도 축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득권을 버리고 교회연합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 한국교회가 하나되고 한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이제 철저한 개혁과 영적갱신을 통해 과거의 분열과 갈등, 물량주의, 근본주의, 교권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이버이단문제 등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모든 잘못된 모습을 벗어 버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대표회장은 이날 공동회장, 부회장 등 임원 및 상임·특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영안장로교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도자기세트를 선물했다. 이날 예배에는 양·이 대표회장과 장 목사 이외에 립인식 전광훈 이신용 이태윤 함동근 김요셉 박유근 한영훈 장석진 황용대 황수원 한기총 정영택 김경일 오정호 소강석 이종윤 신광수 목사, 주대준 김준규 장로 등 교계 인사들이 축사와 격려사, 축도 순서를 맡았다.

성경적 홈스쿨링 대안교육으로 뜬다

제6회 기독교 홈스쿨 엑스포 12월 12일 분당 지구촌교회서

"홈스쿨링(Home Schooling)이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일 수는 있습니다."

공교육이 마땅찮은 학부모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말이다. 차인표 신예라 부부 등 유명인들의 홈스쿨링 얘기를 들으면 학부모들은 눈이 번쩍 뜨인다. 음악에 남다른 천재성을 보이는 남매 그룹 '악동뮤지션'이 홈스쿨링 덕분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는 소문이 개개 꼬여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홈스쿨링을 선택하려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홈스쿨링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무턱대고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왜 홈스쿨링인가="가정(홈)은 인류 최초의 학교이자 가장 기초적인 학습 장소라고 했다. 학교가 세워지기 전부터 시작된 가정 중심의 교육은 유사 이래 쫓아왔다는 소리다. 가정은 교육의 기초적인 중심지이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유일한 교사였던 셈이다."(홈스쿨링 작

가 레이 볼만) 홈스쿨링은 부모들이 직접 교사가 되어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산업사회 이전의 일반적 인 교육 형태였다. 학교가 생기기 전에 가정 안에서, 동네와 그 지역 안에서, 또래들 사이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종교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행위였다.

홈스쿨링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닌 친숙한 단어가 될 정도로 인식의 변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국내의 기독교 홈스쿨링의 모태는 1999년에 창립한 한국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이다. 2007년 400여명이었던 회원은 지난 2월 현재 4500여명으로 늘었다.

김남영(한국기독교홈스쿨협회 대표·사진) 광운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학교'와 같은 제도화된 시스템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교육자가 되어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서 "홈스쿨링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형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

아야만 하는 기존의 획일적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부모 주도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홈스쿨링이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며 교사 역할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개개 인마다 혹은 각 가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크리스천 홈스쿨링은 일반적 인 홈스쿨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국내 홈스쿨 정보 한눈에=12월 오전 10시~오후 9시 한국홈스쿨협회 주최로 경기도 성남 분당구 미금일로 지구촌교회 선교센터에서 '제6회 한국 기독교 홈스쿨 엑스포'가 열린다. 전국 홈스쿨 기관 및 관련 기관들의 연합으로 열리는 이날 엑스포에서는 포트폴리오 전시, 강의, 홈스쿨 가정 상담 등 기독교 홈스쿨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홈스쿨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홈스쿨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선택 강의로 '자녀들의 영성 훈련을 위한 홈스쿨링'과 '인성·성품 교육' '진화론에 대항하는 창조론 교육' 등이 준비돼 있다.

스마트한 홈스쿨링 하기' 발표를 할 김 교수는 "홈스쿨링의 장점은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영성훈련과 자녀의 기질 및 능력에 맞춰 할 수 있는 지성교육, 다양한 연령층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여행이나 견학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교육은 삶과 생활이 딱 들어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적 가치관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하도록 기독교적 세계관 교육 및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또 "성경적 자녀교육은 학문의 기초 단계인 세계관 확립부터 기독교적 가치관 중심의 삶과 교육이 몸에 배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현(지구촌교회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 목사는 '홈스쿨링과 커리큘럼'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성경적 커리큘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권장규(교헌대) 교사는 '아브라함부터 조대교회까지 2000년 동안의 홈스쿨 노하우'와 '성경적인 홈스쿨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한 해답도 제시한다.

교계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출범

13개 단체 출범 선언문, 동성애 치유회복 쉼터 개설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가 10일 서울 논현동 갈보리체플서울교회에서 개최한 협의회 출범식 및 동성애 치유회복 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두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동성애 치유회복과 탈(脫)동성애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교계 단체들이 손을 맞잡았다.

동성애 치유회복단체인 홀리라이프를 비롯해 기독교싱크탱크,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는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로 갈보리체플서울교회(이요나 목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출범선언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옹호·조장하는 일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사회에 탈동성애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단체들은 탈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협의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내 처음으로 갈보리체플서울교회 건물 안에 동성애 치유회복 센터(쉼터)를 마련했다. 또 동성애치유 상담자학교, 월간지 '치유와 상담' 발행, 동성애 치유회복 센터 지부개설, 동성애 예능인들을

위한 크리스천 팸 엔터테인먼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설립과 국제연대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 상임고문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최홍준(부산호산나교회 원로) 목사가 추대됐다. 고문과 공동대표는 각 단체의 고문과 대표가 맡았고 사무총장에는 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목사가 선출됐다. 협의회 측은 동성애 치유회복 센터 마련 및 운영을 위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2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공동대표 이요나 목사는 인사말에서 "협의회는 센터를 통해 동성애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탈동성애자를 섬기며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희망실천연대 사무총장 한석준 목사는 예배설교에서 "출범한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서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단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070-7566-5411).

한국교회 중견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찬수(분당우리교회) 목사를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교회를 이끌 60세 미만의 차세대 지도자 3명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에 29명이 이 목사를 추천했다. 그는 시사저널의 올해 '차세대 리더' 조사에서도 종교분야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사랑의교회 부목사 출신인 이 목사는 2002년 5월 교회를 개척했으며, 성도가 2만명이 넘지만

라고 평가했다. 2위는 13표를 얻은 이재훈(온누리교회) 목사였다. 공동 3위는 각 12표를 얻은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유기성(선한목자교회) 목사였다. 이재훈 목사는 고 하용조 목사의 후임으로 한국교회에 '맞춤종도' 열풍을 일으켰다.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은화한 성품과 오순절 순복음 야성을 지닌 목회자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기

회) 김기석(청과교회) 김은호(오륜교회) 박성규(부산 부전교회) 안희환(예수비전교회) 이상화(드림교회) 이흥정(예장통합 사무총장) 장경동(대전 중문침례교회) 유만석(수원명성교회) 조현삼(광명교회) 한홍(새로운교회) 목사는 각각 2표를 얻었다.

2표 이상 얻은 차세대 지도자 23명 중 연합기관이거나 교단 임원 경력에 있는 목회자는 기관목사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 1위에 이찬수 목사

중견 오피니언리더 조사 "열정 담긴 설교로 호평"

인근 중·고등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인 이훈삼 성남 주일교회 목사는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가끔 듣는데 솔직하고 진지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묻어나더라"면서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나름대로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며 목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그의 파격적인 제안들 때문에 쇼맨십이 강하다는 비판도 받은 걸로 안다"면서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며 한국교회의 관행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

독교회협의회(NCCK) 회장이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는 등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유 목사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내면적 성찰'을 강조하는 영성과 목회자다.

공동 5위(8표)는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목사, 공동 7위(6표)는 김병삼(만나교회)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 공동 9위(4표)는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목사였다. 11위는 지철은(성락성결교회) 목사로 3표를 얻었다. 강준민(미국 새생명비전교

신분인 이흥정 목사를 제외하고 4명(17.3%)에 그쳤다. 특히 1~3위에서 오른 이찬수 이재훈 유기성 목사는 교단과 연합기관 경력에 전무했다. 차세대 리더십이 연합기관이나 교단의 지위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교단별로는 예장통합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통합 기감 기침 기성이 각각 3명이었다. 65%가 기독교신자였으며, 대부분 사회적 나눔과 실천에 힘쓰는 목회자였다. 해외 목회자는 강 목사가 유일했고, 최연소는 안희환(45) 목사였다.

기쁜소식선교회 피해자들 "박옥수 구속하라"

5천원 주식 최고50만원에 팔아...피해 870여명 가정파탄 직전

'기쁜소식선교회' 피해자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김삼옥로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70)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박옥수씨는 자신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순화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신도 등 87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52억원을 받아 가로질러 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 전주지검에서 사건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최근 기각됐다.

피해자 전혜동(40)씨는 "박옥수씨는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신도와

가족들에게 액면가 5000원에 불과한 ㈜순화 주식을 주당 10만~50만원에 팔았다"면서 "이는 그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문화가 만든 건강식품 '또벌'이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옥수씨의 거짓말에 속은 870여명은 지금 가정파탄 직전에 있다"면서 "사법부는 세월호 배후로 지목된 유병언씨가 수사 착수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교 집단 교주인 박옥수씨를 공익 차원에서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모씨도 "박옥수씨의 말만 믿고 말기암 환자였던 시어머니 치료를 위해 또벌을 7000만원어치 구매했다"면서 "교회에서 병원치료를 받으면 또벌의 효능을 알 수 없으니 또벌만 먹으라고 권해 시어머니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주모씨도 "피탐 흘러 번 돈 중 일부라도 되찾기 위해 교회에 주식매각을 문의했지만 '알아서 처리하라'며 매입을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는 "우리 단체와 박옥수씨는 문화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면서 "다만 또벌을 복용하고 좋아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선교의 창 (22)

근대역사 속의 선교적 진앙지(3)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지금은 파소로마나(Pax Romana)처럼 "팍스 아메리카나"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이다. 미국은 존 커버,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Mayflower)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북아메리카) 프로빈스 타운 항구에 닻을 내린 것은 1620년 11월 21일이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렇게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서 세워졌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민족자결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연방제 국가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독립전쟁(1775-1783년)후 비로소 영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18세기말, 미국은 전쟁의 후유증, 이신론의 대두, 교회의 쇠퇴 등으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엔 후사크 강과 대학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기도하곤 하였다.

1806년 8월 밀즈는 친구4명과 함께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소나기를 만났다. 그들은 이를 피하고자 건초더미 밑으로 들어가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 기도제목은 학생들 간에 해외 선교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때 밀즈는 "만약 우리가 뜻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친구들을 격려했는데 이 말이 뒤에 가서 그들의 표어가 되었다. 그 건초더미 아래에서 해외선교사로 지원한 다섯 명이 주축이 되어 미국에 최초로 "학생선교회" 모임이 생겨났다.

윌리엄즈 시에 돌아온 이들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모임

미국 대학인 선교역사의 한 분수령이 되었다. 이 모임은 무디(D. L. Moody)를 중심으로 성경공부와 복음 전파수단의 음악공부를 하였는데 자유롭게 토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6월 16일에는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세계선교"(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의 편집자인 피어슨(A.T. Pierson) 박사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되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요지의 설교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그는 "세계 복음화는 우리 세대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 집회 후 윌더(Robert Wilder)와 포먼(John Forman)은 헬몬산에서 받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여러 젊은이들과 나누기 위해 1886년과 87년 사이 미국과 캐나다의 162개 교육기관을 방문하였다. 이 활동으로 50명의 여성을 포함한 2,106명의 젊은이들이 해

회였다. 1891년에는 오하이오 주 리블랜드에서 제1차 국제학생전도대회가 열렸다. 이때 32명의 선교회 대표들과 31명의 외국선교사를 그리고 151개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558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이 학생지원자운동은 계속 성장하였고 1920년 데스 모네스(Des Moines Convention) 대회는 그 절정이었다. 이 연례 집회에서는 949개 학교에서 6,890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하였고, 2,783명이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등록하였다.

SVM은 미국 기독교사 가운데 존재체로서 의의가 크다. 한 때는 그 규모가 700개 교육기관에 40,000명이 넘었고 1945년까지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의 후원으로 20,500명의 학생들이 SVM 선언에 서명한 후 선교지로 떠났으니 그 공헌도가 작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근대와 현대



방지일 칼럼 (69)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는 “그대로 되니라” 그 뜻대로 그 설계대로 그 생각하신대로 되어졌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마지막에 1남1녀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는 매우 좋았더라(창1:21) 하나님의 설계대로 되심에 극히 만족하심의 말씀이라 하겠다.

나는 2006년 11월 21일 캄보디아에 가게 되어 인천 공항에서부터 휠체어에 앉아 출국하고 프놈펜에 입국해서 몇 번이나 승강기를 탔다. 그 육중한 것이 버튼을 누르면 오르고 내린다. 언제나 그것이 내 휠체어 있는 곳으로 와서 맞는 데 꼭 내 휠체어와 똑같이 평면에 싹 맞는다. 좀 낫아도 휠체어가 굴러 균형이 안맞으니 내리 떨어지고 좀 높아도 휠체어가 제대로 구르지 못하고 높아지지 않을 들어야 될 터이다. 비행기 타는 앞까지 가는 데는 어떤 때 경사가 가파라서 밀어주는 이가 뒤에서 휠체어를 뒤로 걸으며 내 편의를 돕고 위치를 바꾸어 끌기도 밀기도 하는데 승강기엔 그런 일이 있지 않다. 꼭 평면 그대로 승강기가 벗어나기 때문이다. 전에도 타고 다녔지만 이번엔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보고 그대로 되어진 것이 그렇게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의 표현도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 명하신대로 그의 소원대로 그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살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은 그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심정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셨을 터인데 피조물 중에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다. 금지령을 범했다. 그 말씀을 거스렀다. 어느 피조물이 그의 뜻을 거스리지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사람만이 그렇게 해서 실낙원의 비극을 연출하였고 하나님 자신이 사탄이 되어 그 범죄의 형을 자신이 받으시며 속죄, 대속, 구속하시는 크나큰 혁명을 일으키사 복락원의 길을 여신 바가 속죄 구령의 복음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아마 지구촌에선 가장 열악해진 나라 캄보디아는 점점 복되고 있거니와 지성인의 대학살로 인한 인간의 황폐로 인하여 이렇게 낙후되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선교사가 150가족 아이들까지 400명이 와서 일한다. 대학살 때에 믿는 사람이 겨우 200명 남았는데 지금 15만명 정도라니 큰 발전이다. 지금 각 교단이 다투어 비교적 잘 받아들이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와보게 되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이번에도 이 “그대로” 되는 창조된 원리를 배우면서 한 자를 적어둔다. 그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어떤 성과를 먼저 예기함이 보편인데 여기서 나는 한번 더 깨우침을 받으면서 선교 후배들에게 이렇게 글로 또 말로 할 셈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저 그 말씀대로 그 본부대로 그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다. 내 사명을 다 함이 되겠다. 일은 그가 하실 뿐이다.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하시는 일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바이다. 승강기를 사용할 때마다 그렇게 맞게 내가 누르는 대로 어느 층에 가자, 오르자, 내리자 하면 그는 그대로 행할 뿐이다. 내가 승강기만 못해서야 되겠는가, 그저 순종만 하면 내 부분은 다 하는 일이다.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주님이 좋아하신다. 그가 매우 좋아하시게 살아 마땅하다. 이 원리를 바로 감당함이 역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양 내 의견, 내 이성,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지능이 앞선다. 벌써 자기 일, 자기 직장에 살 뿐이다.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함이다. 이 한 토막의 실정을 다시 배웠기에 이렇게 기록에 남겨둔다.

(2007년, 28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들판을 사른다.

하나님은 작은 불꽃같은 창조적 소수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인하여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통교회 밖에서 또 다른 영적 불꽃을 일으키셨다. 그곳은 대학이었다. 바로 건초더미 기도모임이다. 이때로부터 촉발된 각성운동은 전 미국 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부흥과 선교의 물결은 세계로 나아갔다. 미국 선교역사의 골든 체인(Golden Chain)이 사발된 것이다. 그것은 건초더미 기도회가 헬몬산 집회로 연결되었고 이 집회는 학생 선교 지원자운동(SVM)으로 꽃을 피웠다. 근대 역사 속의 미국을 다시 일으킨 골든 체인의 실상은 무엇인가? 과거 역사를 직시함은 미래로 나아가갈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사우엘 밀즈(Samuel J. Mills, Jr)와 건초더미 기도회(1806)

사우엘 밀즈(Samuel J. Mills, Jr)는 코네티컷 주에서 조합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798년에 시작된 대자각운동의 영향으로 17세 때에 개심했다. 그는 개심한 순간부터 전 생애가운데 세계선교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19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께 “가련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상으로 만족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밀즈는 1806년 대사추세츠 주에 있는 윌리엄즈

을 가졌고 1808년 9월에는 ‘형제단’(The Society of Brethren)이라 이름 하는 공식적인 모임을 창설하였다. 그 구성원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을 바친다는 뜻 아래 비밀한 맹세를 함으로써 단결을 굳게 하였다. 또한 이 모임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던 끝에 미들베리, 예일대학 등에 사람을 보냈다. 사학자이자 교회확장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케네스 스코트(Kenneth Scott Latourette)는 미국교회와 해외선교에 대해 최초로 크게 자극을 받은 계기는 바로 이 “헤이스택(Haystack movement) 기도회에서부터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헬몬산(Mount Hermon)의 학생 집회(1886)

1856년 미국에는 156개의 대학과 46개의 신학교가 있었다. 그 중 70개 대학에 다양한 성격의 기독교단체가 생겼다. 이렇게 많은 신앙단체와 운동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이 건초더미 기도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헤이스택 기도회에서 시작된 미국의 대학인 선교운동은 80년 뒤인 1886년 6월 헬몬산(Mount Hermon) 집회로 연결되었다. 이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외선교를 위한 프린스턴 헌장(Princeton Pledge)에 서명하였다. 이 서명자 가운데 무슬림 지역 선교사가 된 쥘머머(Samuel Zwemer)와 다음 세대의 훌륭한 전도자가 된 스피어(Rober E. Speer) 등이 있었다. 그 헌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것이 다.

학생 지원자 운동(SVM: 1888)

헬몬산에서 받은 비전은 이제 1888년 11월 6일 구체화 되었다. 그것은 세계선교를 향한 대학인 지원자운동단체(SVM)이었다. YMCA의 대표로 존 모트(John R. Mott)와 YWCA의 대표로 네이튼(Netidon) 양, 신학교 선교연합회 대표로 로버트 윌더(Robert P. Wilder) 등이 뉴욕에 모여 학생선교지원자운동(SVM: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의 표어는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 시키자’이었다. 초대 회장으로 존 모트, 여행총무 직으로 로버트 윌더가 맡았다. 이 모임은 프린스턴 헌장을 본 따서 선언카드를 만들었다. 그 후 이 운동은 30년 동안 놀랍게 성장하였다.

이 기관을 통한 운동의 특징 하나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선교대

를 잇는 역사의 과도기에 SVM을 통해 대학인들과 미국교회를 깨우고 세계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였다.

맺는 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사60:22). 이상에서 우리는 미국의 근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선교운동을 살펴보았다. 이는 사무엘 밀즈에 의해 시작된 건초더미 기도회가 헬몬산의 학생집회 그리고 SVM운동으로 이어져 미국과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영적 큰 불이 되어 세계로 확장될 줄은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간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쓰임을 받았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바로 청교도 사상과 근대사 속의 영적 골든 체인의 운동(Movement)과 무관할 수 없다. 현대 미국의 옛날과 상당히 다르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이제 우리 코리안아메리칸이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제 2의 청교도적 사명으로 미국을 위해 축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불꽃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어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 2015. 2.16~2.26 -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스(10박11일) \$2,699
- 2015. 3. 2~3. 9 - 터어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5. 3. 2~3.12 - 터어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14 - 터어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의 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동독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Olympic Blvd.
로스앤젤레스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Christmas Greeting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아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아니라(눅 2:14)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7 Jarvis Ave., Syosset, NY 1179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 Tel. (718)639-3021 Fax.(718)507-6376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Tel. (303)422-6950 Fax.(303)422-6943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Tel.(323)466-1234 Fax. (323)466-0816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0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벤엘교회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3521 Lomita Bl. #200 Torrance CA 90505 Tel.(310)749-0577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501 S. L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714)524-8800 Fax.(562)690-8044	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el. (818)952-2449	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Tel.(347)753-4551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Tel.(718)570-585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215)927-06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효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516)277-1103 Cell.(917)922-05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0.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비전 가꾸기(2)

이번호에는 요셉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일찍 요셉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꿈이 하도 이상해서 혼자서는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웠나 봅니다. 식구들에게 꿈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형제들과 사이를 나쁘게 하였고 부모인 야콥은 요셉을 다른 자식과는 다른 자식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도 다른 자녀들과는 다른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생각지도 않은 구덩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tion)(창42:2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들 중에는 남편의 사역과는 상관없이 사명감 없이 그냥 남편이 목사 이기에 사모라는 호칭만을 들으면서 사역에 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모와 사는 목회자의 경우,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첫째는 포기한 나머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감당해나가느라 절절해지는 목회자가 있는 가 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심하게 아내에게 요구해오다보면 심한 경우에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모들에게도 인생구덩이에 쳐 놓여지는 때도 있습니다. 구덩이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돕는 자도 없습니다. 나 홀로입니다.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 현실 앞에 아연 질색하는 사모들도 있습니다.

사모들도 목회를 하다보면 이유 없이 사모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때문에 사모들은 탈진이 되기도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하루아침에 강단권을 빼앗기는 목회자들의 가슴은 멍이 들고 있습니다.

Train, Test

이런 커리큘럼에서 어떤 훈련을 받게 되었나요? 그리고 자격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었나요?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형들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회

광야학교 구덩이 교실에서 거절감, 용서 익힌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디플로마 얻게 돼

가는 길이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요셉에 대한 주제로 뮤지컬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상하지 못하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한 것이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자세히 드러다 보면 인생의 역전드라마요, 어느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대하드라마입니다. Joe Ferente 목사가님이 만든 신 'Shool of Suffering'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요셉의 생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Class 1-구덩이(pit)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광야학교에는 네 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실은 구덩이요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입니다. 세 번째 교실은 감옥이요 네 번째는 왕궁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주려고 도단까지 갔습니다. 형들을 찾기 위해 며칠씩 찾아 헤매다가 결국 형들을 만나 반가웠으나 그에게는 구덩이라는 기가 막힌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환경이 그의 앞에 닥쳤습니다. 그가 자랑한 꿈과는 전혀 반대적이었습니다.

Curriculum-거절(rejection), 괴롭힘(affliction)

'구덩이'라는 교실에는 '거절-rejection'(창37:23-24)이라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거절받은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철저한 거절감을 경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사모들은 성도들로부터 이런 거절감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감은 사모들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사명가꾸기 시간에 몹시 힘들게 합니다. 구덩이라는 교실에는 괴롭힘이라는 커리큘럼(affliction)(창42:2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들 중에는 남편의 사역과는 상관없이 사명감 없이 그냥 남편이 목사 이기에 사모라는 호칭만을 들으면서 사역에 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모와 사는 목회자의 경우,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첫째는 포기한 나머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감당해나가느라 절절해지는 목회자가 있는 가 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심하게 아내에게 요구해오다보면 심한 경우에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 했을 것입니다. How to Love-용서(forgiveness)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구덩이에서 철저히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창 45:1-8, 50:17)"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훗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 주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Diploma-Glorify God by our Love

마침내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학교에 있는 구덩이라는 교실에서 그는 거절감을 특별히 경험하였고 용서하는 방법을 철저히 익힌 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디플로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창50:19, 21)"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사모들 중에는 "왜래부터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20여년간 사모의 일을 감당하느라 애써온 결과 만일 내가 사모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의 신앙상태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생각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모였기에 그나마도 신앙의 훈련이 이만큼이라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모는 행복한 사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시22:9-11)

시22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함없이 감 사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모든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온갖 조롱과 훼방을 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넉넉히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고난을 끝까지 참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출생시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당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상황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바 되었고!(시22:10-11)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바 됐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사랑하는 부모의 팔에 안기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안기우고 맡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돌보십니다. 지금도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

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태에서 나를 때부터 주님은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되셨던 그 분께서 우리가 홀로 돌아갈 때도 함께 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실 때까지 내 하나님이 되셔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시22:11-13)

오늘 본문은 조롱과 훼방 속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환난이 가깝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의 환난이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는 가장 강력한 기도로 하늘보좌를 움직이게 됩니

다. 더 나아가 "주님 밖에 도울 자가 없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홀로 절대 고독을 참아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주님 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외치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서 감싸주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목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시22:14-20)

본문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힘이 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을 다 쓰셨습니다. 극한 고통 때문에 마치 몸이 뜨거운 열로 인해서 초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바짝 말라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과 열로 인해서 그분의 혀가 잇몸에 들러붙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도 주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신 상황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드디어 기도는 응답되고 십자가의 아픔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사망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 내가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시22:21-22)

시22편은 전혀 다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려운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이제는 평화가 이르렀습니다. 갈보리의 어둠은 마침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망의 진토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승리의 빛을 보시고 그 결과를 내다보시며 승리를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며 구원을 이루신 후에 교회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사명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교회에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신지!

토 그를 경외할찌어다!(시22:23-24)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4절에는 구체적으로 왜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하는 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께서는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한 순간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곤고한 자"란 "고통을 당하는 의인"을 말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항상 치료해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123-9419, HP. (02)123-9419 군포시 금곡동 870-5</p>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490-7000, Fax. (02)49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교역사리 북구 중앙동 936-1번지</p>	<p>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977-8383-9, Fax. (03)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교우회) VIA DEI QUINTILII, 32-39 00175 ROMA, ITALY</p>	<p>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seongsil.or.kr Tel. (02)2-999-0998, Fax. 9927-1008 서울시 강동구 수유동 321-49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토요일은 쉽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0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p>	<p>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9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길 29(삼일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2-786-6579, 사택: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0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g.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0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설립 40주년 맞은 퀸즈장로교회 성탄축하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공연

이번 “엘리아” 공연에 대해 김성국 목사는 “몇 년전부터 공연을 계획해왔는데, 실제 연습하고 준비한 것은 4개월 전부터다. 엘리아를 그대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를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문화를 섬겨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엘리아가 창의적으로 공연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공연에 앞서 전한 메시지에서 김성국 목사는 “오늘 본문(왕상18:39)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인가 아니면 바알인가에 대한 똑바른 태도를 취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바알의 선지자가 불렀던 바알신은 응답이 없었고, 엘리아의 기

“모든 백성들이 부른 그 이름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 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엘리아는 발견했고 오늘 우리도 함께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것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공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소망이고, 위로이고, 능력이고, 응답이고, 하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한다. 엘리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다.

1번 서창, 서곡에 이어 30번의 합창까지 1시간 30여분의 공연시간 동안 음악적 요소뿐 아니라, 교회정면 벽 전체를 커버하는 극적인 배경영상, 화려하고 강렬한 조명, 바디워시 등은 클래식한 오라토리오를 새롭게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으리라 말하고 죽었던 소년을 다시 살리고 갈멜산에서 아합왕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으며 다시 비를 내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1846년 초연 이후 열광적인 앙코르를 받아 합창 네 곡과 독창 네 곡 이상을 다시 연주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교회 지 “아가페”를 40주년 기념특집호로 제작했다. “아가페”에는 김성국 담임목사의 글 “에벤에셀 하나님”과 장영춘 원로목사의 칼럼 “기도는 생명, 승리, 축복이다” 등에 이어 김 목사의 설교와 장로들의 감사와 은혜의 글들이 실렸다. 또 교우들과 교역자들의 글, 교사와 어린이, 청년들의 간증들이 실렸고 선교지와 수련회를 다녀온 교인들의 글들이 게재돼 동 교회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김성국 목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과거의 묻혀있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놓아 외치겠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초대시

성/탄/전/야



김문희
(권사, 시인)

아무리 가난해지려고 해도
가난해질 수가 없다.
겹겹이 둘러싼 욕망의 벽.
아무리 버리려해도
버릴 수가 없다.
견고하게 얽힌 소유의 밧줄.

가난해지지않고는 찾을 수 없고
버리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겨울 베들레헴,
그 정직한 남루
그 깨끗한 가난,
예수의 탄생.

기나긴 여행
오랜 방향으로 쓰러진 가슴에
남몰래 비치는 맑은 하늘빛.
목마른 기다림,
탄원으로 목선 사람들의 가슴에
문득 탄생하는 따뜻한 기쁨.

화려한 크리스마스
눈부신 장식의 추리 곁에서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
진실로 맑고 따뜻한 하늘
예수의 얼굴.

퀸즈장로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보수와 개혁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문화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



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장영춘 원로목사님의 보수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목회에 따라 퀸즈장로교회는 ‘항상 새롭게, 항상 보수적으로’라는 모토

엘리아의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라고 새롭게 고백하는 장면이다. 엘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도와 부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퀸즈장로교회 ‘사랑의 바구니’ 전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올해도 ‘사랑의 과일바구니’를 만들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퀸즈장로교회 남녘선교회 교인들과 교역자 30여 명

은 지난 11일 각종 과일과 초콜릿, 캔디 등이 담긴 ‘사랑의 바구니’ 150개를 만들었다.

이날 만든 바구니는 경찰서, 소방서,

너싱홈, 병원, 커뮤니티보드, 학교, 노인상조회, 국제장애인선교회와 뉴욕밀알선교단 등 장애인단체와 새생명선교회에 전달됐다. 또한 플라싱에 있는 흑인교회인 마케도니아교회와 퀸즈장로교회 인근 주민들에게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바구니 제작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수고하는 소방관, 경찰

서,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과 각 자선단체들에게 사랑의 바구니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주 안에서 하나되어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선한 일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자”고 기도했다.

바구니에는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는 카드도 함께 넣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교인은 물론 혼자 지내는 어르신과 유학생, 조손족 동포와 교회 인근 이웃을 초청해 풍성한 음식을 나누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룩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레위기 속에 감춰진 값진 보화, 거룩의 재발견!
이 시대 탁월한 복음의 스토리텔러 소강석 목사가 들려주는
철저한 레위기 본문의 분석과 견고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감동의 거룩 시네마!
거룩의 향기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한다!



259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소강석
지음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완전한, 참 거룩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필독서!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메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틴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생명나무
503면 / 16,000원



스פק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단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레위기의 신을
정복하라
268면 / 11,000원